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거울조각
수상내역	우수상(재단이사장상)
작가	최윤병, 윤성호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영화
소재	직지
이야기 소재 (Motive)	금속활자에 숨겨진 비밀. 고려시대 홍건적의 난 금속활자, 직지, 성안길, 원흥이 방죽, 철당간, 중앙 도서관, 수암골, 우암산, 문암 생태공원, 키텍스 공장부지,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중앙공원, 운보의 집, 용화사
스토리 구성 (Plot)	<p>기 - 금속활자를 얻으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박 교수. 집으로 날아온 협박편지와 함께 그를 찾아온 한우리. 그녀와 함께 홍건적을 피해 수혁의 집으로 도망간다.</p> <p>승 - 홍건적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려가 숨긴 병기를 찾아내라는 협박을 받지만 한우리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활자에 숨겨진 병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 흥덕사지를 방문하고 얻은 힌트로 철당간을 향한다.</p> <p>전 - 한우리가 자신이 홍건적들의 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 교수를 돕기로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수혁은 자신이 홍건적의 수장임을 밝히며 다른 수장과 부하들을 죽인다.</p> <p>결 - 수혁은 병기인 천부인을 지키는 한씨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 잡히고 박 교수는 천부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p>



:: 우수상 ::
재단이사장상

거울조각



최 윤 병 윤 성 호

기획의도

최초의 금속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로 인해 우리 고장의 우수함을 이야기하려 했다. 청주 문화원형들을 상상력과 이야기로 연결하였으며, 연계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내포되도록 하였다.

작품소개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금속활자에 숨겨진 비밀. 고려시대 홍건적의 난 금속활자, 직지, 성안길, 원흥이 방죽, 철당간, 중앙 도서관, 수암골, 우암산, 문암 생태공원, 키텍스 공장부지,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중앙공원, 운보의 집, 용화사
스토리 구성 (Plot)	기 - 금속활자를 얻으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박 교수. 집으로 날아온 협박편지와 함께 그를 찾아온 한우리. 그녀와 함께 홍건적을 피해 수혁의 집으로 도망간다. 승 - 홍건적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려가 숨긴 병기를 찾아내라는 협박을 받지만 한우리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활자에 숨겨진 병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 흥덕사지를 방문하고 얻은 힌트로 철당간을 향한다. 전 - 한우리가 자신이 홍건적들의 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 교수를 돕기로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수혁은 자신이 홍건적의 수장임을 밝히며 다른 수장과 부하들을 죽인다. 결 - 수혁은 병기인 천부인을 지키는 한씨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 잡히고 박 교수는 천부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박 교수(박인환) - 30대 후반의 교수로 금속활자를 연구한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금속활자의 암호를 풀어내며 천부인을 찾아내는 인물이다. 한우리 - 30대 초반의 여성. 홍건적 단원이었다가 박 교수와 함께 쫓기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며 그녀의 핏줄에는 아픈 과거가 숨어 있다. 수혁 - 박 교수의 친구. 냉철하지만 장난을 칠 줄 아는 인물이다. 박 교수에게 접근한 목적은 고려가 숨긴 병기를 찾기 위해서이며 사실은 홍건적의 세 명의 수장 중 한 명인 붉은 장군이다. 그의 손에 의해 홍건적의 두 명의 수장과 단원들이 전멸한다.

	<p>홍건적 수장 - 노인으로 박 교수와 한우리를 압박하는 인물. 홍건적 검은 장군으로 불린다. 마지막에 수혁의 손에 죽는다.</p> <p>경한 - 백운 경한 스님. 고려시대 스님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과 백운화상어록을 저술한 사람이다. 천부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봉인할 장소를 찾다가 청주에 봉인을 하게 된다. 금속활자의 개발은 천부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든다.</p> <p>공민왕 - 고려의 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다. 홍건적들을 물리치는데 천부인의 힘을 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임을 감지하고 경한과 함께 봉인을 결정한다. 일부러 타락한 것처럼 보여서 홍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천부인 사건을 감춘다.</p> <p>대장장이 - 금속활자 개발에 힘을 쓴 인물. 홍건적이 인질로 딸을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나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경한의 도움으로 딸을 구하러 갔다가 딸이 홍건적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분노하고 홍건적과 싸우다 죽는다.</p> <p>최영 - 고려 장군. 대장장이 딸 구출 작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왕이 일부러 타락한 모습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이성계에게 자신에게 어떤 죄라도 씌워서 죽여 달라고 하여 죽음으로 천부인의 존재를 숨긴다.</p> <p>근육질 사내 - 홍건적 수장 중 하나인 푸른 장군. 한 교수를 협박하러 왔다가 수혁의 손에 죽는다.</p> <p>한 교수 - 박 교수의 스승이며 한우리 아버지. 수혁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죽인다. 한씨 집안의 중심으로 박 교수에게 금속활자를 준 인물. 박 교수를 천부인을 지키는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p> <p>기타 - 검은 정장 1, 2, 3, 4, 깃발 병사, 노승, 젊은 스님 1, 2, 3, 4, 간부 1, 2, 3, 여자, 직원, 남권희 교수, 관리인, 검사</p>
--	--

시놉시스

박 교수는 금속활자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를 하는 도중에 금속활자를 넘기라는 협박편지를 받게 된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한우리라는 여자가 찾아온다. 한우리는 홍건적이 보낸 협박 편지라는 말을 한다. 믿지 못하는 박 교수의 집안에 총알이 날아들고 두 사람은 도망쳐서 수암골에 있는 수혁의 집으로 피난한다.

다음 날, 수혁의 집에서 나와 문암 생태공원으로 간다. 생태공원에서 박 교수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사이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나타난다. 그들에게 붙잡혀 킥텍스 공장의 창고로 끌려간다.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은 홍건적 수장으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

고려 공민왕 시절에 홍건적을 몰아낼 때 비를 다루는 병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까지 병기를 찾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는 그 병기를 경한 스님과 공민왕이 숨기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경한은 그때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한 대장장이를 찾아가고 그 대장장이가 홍건적에게 딸을 인질로 잡혀서 움직인 사람이라 한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금속활자를 완성시키고 공민왕은 최영과 경한에게 납치되어 있는 딸을 구해주라고 명한다. 그러나 이미 홍건적의 막사에 도착했을 때에는 대장장이의 딸이 홍건적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대장장이는 분노해서 홍건적들과 싸우다 죽는다. 대장장이 덕에 홍건적 막사를 탈출한 최영과 경한은 왕이 일부터 타락한 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공민왕은 자신의 죽음으로 병기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마친 홍건적의 수장은 박 교수에게 병기의 위치를 찾아내라는 이야기를 한다.

홍건적의 비밀 거처에 갇힌 채 연구 자료만 보다가 홍덕사지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다. 그 때 한우리가 박 교수를 구출하고 함께 홍덕사지를 향한다. 홍덕사에서 박 교수는 숨겨진 힌트 중 하나인 철당간으로 이어지는 좌표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고인쇄박물관 안에서 바벨탑 모형에 들어있는 금속활자를 하나 더 얻는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고는 맞은편에 있는 성당에서 성경을 한 권 구해온다. 성경에서 바벨탑에 관한 구절을 읽으며 우리 민족이 가져온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병기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용두사지 철당간을 향해 간다. 철당간에서 활자를 하나 더 찾아냈을 때 검은 정장 사내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성안길 쪽으로 도망간다.

홍건적들에게 쫓겨서 성안길을 지나 영화관으로 피신한다. 상영관 안에서 박 교수는 키스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꾸며서 그들을 따돌린다. 그리고 로데오 거리로 나와서 옷을 사서 바꿔 입는다.

차로 돌아오자 한우리가 자신이 홍건적과 같은 편이라는 고백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교수의 딸임을 밝힌다. 한 교수는 박 교수의 스승으로 금속활자를 넘긴 인물이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고 한우리는 박 교수를 진심으로 돕기로 마음먹는다. 한 편으로는 박 교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사직사거리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다. 날이 어두워서 대청호 외곽의 모텔로 간다. 뉴스에서 남권희 교수가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를 찾아가보기로 한다.

다음 날, 경북대학교로 갔지만 별 소득이 없이 돌아오게 된다. 다시 철당간으로 향하는 두 사람은 철당간에서 수혁과 만난다. 수혁은 놀러 나왔다가 마주쳤다고 한다. 박 교수는 철당간을 열심히 조사한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홍건적들에게 쫓긴다. 육거리 방향으로 도망친 박 교수 일행은 꽃다리를 건너며 가까스로 신호 덕분에 홍건적들을 따돌린다.

중앙 도서관 앞에서 서로 헤어졌다가 종이에 적어준 장소에서 모이자고 하고는 헤어진다. 박 교수는 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집에 들리기로 한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도착한 박 교수는 죽은 한 교수에게서 편지가 와 있는 것을 읽는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흐트러져 있는 서재 바닥에서 백운화상어록을 찾는다. 책 사이에서 떨어진 종이의 주소를 찾아가기로 한다.

종이에 적힌 주소는 운보의 집이었다. 안에 들어가자 미술관 앞에 관리인이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자 관리인은 한씨 집안에 연락해 도와주겠다고 한다.

박 교수는 운보의 집을 나와 용화사를 향한다. 용화사에 도착해서 불상을 보고 있는 사이 수혁이 온다. 그리고 뒤이어 홍건적 수장이 홍건적들을 잔뜩 이끌고 들어온다. 홍건적 수장에게 잡혀있는 한우리도 보인다. 박 교수와 홍건적 수장이 언쟁하는 사이에 붉은 셔츠의 사내들이 몰려온다. 수혁이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도 홍건적의 수장이라며 싸움이 일어난다. 그 사이 도망친 한우리과 박 교수는 일곱 개의 불상 앞으로 간다.

수혁은 그 사이 홍건적의 수장을 죽이면서 모든 수장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박 교수가 있는 곳으로 온다. 언쟁을 하는 동안 수혁의 부하들은 모두 죽는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만 남았지만 수혁이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려둔다.

수혁은 박 교수에게 자신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알리고 천부인을 찾아내라 하지만 박 교수가 건넨 거울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마지막 남은 검은 정장의 사내를 죽인 수혁은 다시 박 교수에게 거울을 건네고 거울을 받은 박 교수가 눈을 감고 기원하자 비가 내린다. 박 교수에게서 다시 거울을 받은 수혁은 거울을 바닥에 내던져 거울을 깨뜨린다.

수혁에게 자신이 치우의 후손이라는 말을 한 박 교수는 혼란에 빠진 수혁을 둔 채 용화사를 빠져나오고 수혁은 한씨 사람들에게 잡힌다. 한우리는 박 교수와 함께 운보의 집에 다시 방문한다. 그리고 김기창 화백의 무덤에서 청동검과 거울, 방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용화사로 돌아온다. 용화사에는 경찰들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씨 집안의 검사가 이 사건을 조직 폭력배끼리의 세력다툼이었다고 발표하겠다고 한다. 일곱 개의 불상에 금속활자를 끼워 놓자 물건의 흠이 파인 돌이 나온다. 그 흠에 세 가지의 물건을 올리고는 다시 돌을 밀어 놓자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갠다. 박 교수는 한우리와 함께 저녁 약속을 하며 용화사를 빠져나온다.

거울조각

프롤로그.

대학 교수실. 길쭉한 방안에 책장이 좌우로 쭉 늘어서 있고 창가에 가까운 곳에 놓인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 하나와 모니터 높이만큼 책들이 잔뜩 쌓여있다. 그리고 책상 앞에서 펼쳐진 서류를 정신없이 모으는 박 교수. 정리하던 서류 사이로 동그란 거울이 하나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거울이 깨지면서 조각이 사방으로 튈다. 박 교수의 시선을 따라 거울을 보여주며 점점 거울조각 하나가 클로즈 업 된다. 타이틀이 뜬다. (암전)

S# 1.

(밝아지며) 박 교수 집 앞.

이 층짜리 주택 대문 앞에 서있는 박 교수. 우체통에 손을 넣은 뒤 편지 한 통을 꺼낸다. 편지 봉투는 붉은색으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박 교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S# 2.

박 교수의 서재.

벽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다. 그리고 서류들이 위로 높게 쌓여 있다. 방문이 열리면서 박 교수가 안으로 들어온다. 어깨에 맨 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으며 검은 편지봉투를 개봉한다. 종이를 펼친 후 코웃음을 친다.

박 교수 누가 이런 장난을.

편지가 클로즈 업 되며 편지의 내용이 보인다. 편지 내용에는 활자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교수는 아까 내려놓은 가방 속에서 서류 봉치와 주머니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주머니는 펼쳐서 속에 든 것을 쏟아낸다. 금속활자들이 책상 위로 쏟아진다.

나레이션(박 교수 목소리) 얼마 전 직지를 조사하던 중 금속활자가 나왔다. 아직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연구를 위해 집으로 들고 왔다. 그런데 협박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장난 같은 편지를 보낸 자를 고발할 생각이다.

갑자기 벨소리가 들리고 박 교수는 서재의 문을 열고 나간다.

S# 3.

대문 앞. 여자가 서 있다. 여자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문 앞에서 불안한 듯 발을 구른다. 대문에서 소리가 나고 박 교수의 모습이 보인다.

박 교수 누구시오?
여인 혹시 박 교수님 아니신지요?
박 교수 내가 박 교수입니다만. 무슨 불일로.
여인 박사님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주 큰일이예요.
박 교수 혹시 그쪽이 장난편지를 보낸 것이오?
여인 역시 편지를 받으셨군요. 제가 보낸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래된 조적이 보낸 것입니다.
박 교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여인 여기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군요. 일단 안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 교수 아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여인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는) 혹시나 누가 듣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박 교수 하아. 일단……들어오시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며 대문이 닫힌다.

S# 4.

박 교수 집 안 거실.

2인용 소파에 앉은 여인. 박 교수는 1인용 소파에 앉는다.

박 교수 자, 이제 설명해 보시오.
한우리 우선 제 소개를 하지요. 제 이름은 한우리입니다. 청주 한씨 집안이지요. 혹시 그 편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박 교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서 건넨다.) 여기.
한우리 (종이를 받아 펼치며) 역시. 박사님은 혹시 홍건적에 대해서 아시나요?
박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고려 시대에 난리를 일으키고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 아니오.
한우리 사실 아직까지도 홍건적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에게 쫓겨 세력이 약해져서 숨어버렸지만 말이죠. (종이의 문장을 가리키며) 이것이 홍건적의 표시죠. 항상 붉은 종이에 다음의 심볼을 새겨서 서로 연락을 하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무언가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오랜 시간동안 찾아다닌 것 같고요.
박 교수 허무맹랑한 이야기란 생각이 들지 않소?
한우리 차라리 그랬으면 속이야 편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박사님은 그들에게 이미 신변이 노출되었습니다.
박 교수 (일어나 창가로 간다. 문을 열고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문다. 그리고 불을 붙인다.) 나 원 참.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한우리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박 교수 옆으로 걸어온다. 그 때 창가 한쪽에서 총성이 울린다. 그리고 박 교수의 옆 유리가 깨진다. 한우리가 박 교수를 끌어안은 채 쓰러진다. 그리고 재빨리 박 교수를 일으켜 세워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한우리 저들이 찾는 물건 어디에 있나요?
박 교수 (바닥에 엎드린 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서재.

한우리 박 교수의 손을 끌어 방문까지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그리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금방 나온다. 손에는 주머니가 들려 있다. 그리고 현관까지 낮은 자세로 박 교수의 손을 잡아끈다.

S# 5.

대문 앞.

한우리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먼저 달려서 바로 앞에 세워둔 차안으로 들어간다. 박 교수 역시 뒤따라 뛰어 조수석에 탄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곧 출발한다.

S# 6.

차 안.

숨을 고르는 박 교수. 운전하는 한우리.

한우리 다친 데는 없어요?

박 교수 (대답이 없다.)

한우리 이제 믿으시겠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신변이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것입니다.

박 교수 그나저나 당신은 대체……

한우리 저희 집안은 오래 전부터 직지와 관련된 것을 지키는 집안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한모씨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아빠예요. 청주 한씨 중에서도 몇몇은 직지 속에 숨겨진 진실을 수호하게 되어 있지요. 그 한모씨라는 사람이 교수님에게 활자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교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저도 아빠한테 사실에 대한 것은 정확히 들은 것이 없습니다.

박 교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우리 우선은……안전한 곳을 찾아야겠지요. 그들이 함부로 오지 못할 곳어요.

박 교수 그렇다면 경찰서로 갑시다.

한우리 경찰서도 위험해요. 그 조직 사람들 중 경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 쪽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흥건적이 어떤 조직인지는 아실 텐데요. 그들은 원래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지요.

박 교수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요.

한우리 우선 박사님이 받은 자료 전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모두 어디에 두었죠?

박 교수 학교에 있소이다.

한우리 그럼 일단 학교로 가지요.

박 교수 흥건적이라니. 나는 그저 직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었을 뿐인데.

한우리 아마 그들의 목적은 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겠죠.

S# 7.

학교 건물 앞.

차가 멈추고 박 교수와 한우리 차에서 내린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S# 8.

박 교수 교수실 안.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진다. 교수실 안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다.

한우리 이미 다녀간 모양이군요.

박 교수 그래도 아마 못 찾았을 거요.

박 교수 책장 한 쪽의 책을 뺀다. 그 속에 문이 달려 있다. 박 교수 문을 열고 속에 들어있는 문서와 상자를 꺼낸다.

한우리 찾았어요?

박 교수 (손에 든 물건을 보이며) 여기 있소.

두 사람 나가고 불이 꺼진다.

S# 9.

차 안.

문이 열리고 두 사람 탄다. 한우리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킨다.

박 교수 아무래도 내가 찾는 것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소.

한우리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교수님이 연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박 교수 직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요. 우선 내가 세운 가설로는 이 금속활자가 개발되게 된 계기가 팔만대장경 사건이라 생각하오. 고려 때 원나라가 침공한 기록이 있지 않소. 그 때 팔만대장경이 타버렸다고 하고 말이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상으로는 금속활자가 개발되었소. 지금 밝혀진 이야기 중에는 금속활자를 만드는 것은 수도가 있는 절에서는 만들 수 없었다고 하오. 그것은 즉,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말이 되오. 숨긴 것이 무엇이나가 열쇠가 아닐까 싶소만.

한우리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무언가 알 수 있었을 텐데.

박 교수 들고 있던 상자를 연다. 안에는 책이 두 권 들어있다. 책 위에는 직지라 쓰여 있다. 박 교수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다.

한우리 우선 거처부터 찾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해요.

박 교수 그럼 수암골로 갑시다. 그곳에 오랜 친구가 살고 있소.

S# 10.

수암골.

가파른 언덕을 들어오는 차. 멈추고 두 사람 내린다. 박 교수 한 집의 대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불이 켜진다. 그리고 열리는 대문.

수혁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박 교수 수혁아.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

수혁 뒤에 여자는 누구야? 애인?

박 교수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수혁을 따라 들어간다.

S# 11.

수혁의 집안.

상당히 오래되 보이는 집안. 소파도 없고 작다. 방문이 세 개 보인다.

수혁 그래서 여성분은 누구?

한우리 한우리라고 합니다.

박 교수 이번에 맡은 일을 같이 하게 된 분이야.

수혁 반갑습니다. 녀석의 오랜 친구 수혁이라 합니다.

한우리 반갑습니다.

수혁 그나저나 갑자기 집은 놔두고 여기에 왔어?

박 교수 응. 집이 보수공사 중이거든.

수혁 그럼 왜 이 분하고 같이 온 거야?

박 교수 그, 그것은 말이지. (머리를 긁적인다.)

한우리 사실 저희 집도 어수선해서 박 교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집이 공사 중이라고 하셔서 난감해하는 제 편의를 봐주신다고 여기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폐가 되었나 봐요.

수혁 아니, 아니예요. 다만 저 고지식한 친구가 당신 같은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서 말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무뚝뚝해서 웬만한 여성들이 다가가다가 질려서 떠나버리는 성격이라 말이지요.

박 교수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나도 우리 씨랑 일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수혁 호오. 그런 인간이 이 시간까지 같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 보시지.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야?

박 교수 (한우리의 얼굴을 본다) 사실 말이지.

한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꼬셨어요. 그런데 보기보다 잘 안 넘어오더군요. 그래서 마음속의 연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혁 오~ 네놈 제법 능력이 되는구나! 다시 봤다.

박 교수 뭐 그, 그런 거지. (머리를 긁적인다.)

한우리 죄송한데 좀 많이 피곤하네요. 제 잠자리는 어디인가요?

수혁 (일어나 한 방문을 열어주며)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를 쓰시면 되요.

박 교수 아직도 여성이 오면 어떻게 해보려고 준비한 방이 건재하구만.

수혁 그런 걸 네놈한테 듣다니. 흥이다.
박 교수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도 잔다.
수혁 이놈아. 넌 벌써 자면 안 되지. 기다려. 술이나 한 잔 하자.
박 교수 하아. 오늘은 안 돼.
수혁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기다려 봐. (주방에 들어갔다 손에 술과 마른안주를 들고 온다.)
박 교수 (두 손을 모아 빌며)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수혁 웃기지 마. 네놈 말술인 걸 내가 아는데 어디서 내빼? 또 내 헤드락 맛 좀 볼래?
박 교수 제발 그건 봐줘라. 너 옛날에 유도 배운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냐?
수혁 하하핫. 그건 그래.
박 교수 어쨌든 지금 하는 일 끝나고 한 잔 거하게 하자. 그땐 내가 쏜다.
수혁 에이. 한 번 눈감아 준다. 대신에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쏘는 거다.
박 교수 좋아. (바닥에 눕는다.)

S# 12.

다음 날 새벽. 수혁의 집안.
자고 있는 수혁이 모르게 집을 나서는 두 사람.

S# 13.

수암골.
집을 나오며 마을 벽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우리. 길게 이어진 그림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

박 교수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담벼락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다니.
한우리 그러게요. 아참! 이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죠.

차에 탄다.

S# 14.

청주 외곽의 문암 생태공원.
차 한 대 없는 주차장으로 차가 한 대 들어온다. 그리고 내리는 두 사람. 박 교수의 손에는 짐이 많다.

박 교수 여기라면 한적할 겁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미행당해도 도망가기 좋은 곳이니깐요.
한우리 우리는 일단 단서를 잡아야 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단서를 말이죠.
박 교수 내 연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겠죠. 그들이 보낸 편지에서 활자를 넘기라고 했으니 아마 활자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한우리 원래 직지의 활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씨의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던 활자를 숨기지 않고 제게 내어 주었습니다. 분명 우리 씨 집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한우리 아빠가……

박 교수 역사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지요.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몽고의 침입으로 팔만대장경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들어서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홍건적들은 소탕이 되었고 그 이후 직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지를 만든 백운 스님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습니다. 직지를 만든 금속활자의 기술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우리 역사 속에 감추어진 무언가란 말이군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문제는 홍건적의 이념에 대해 알고 싶군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의 윤곽은 잡힐 텐데 말입니다.

한우리 역사상으로 본다면 그들은 나라를 세우려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 무언가 세상을 뒤집을 무기를 찾는 것은 아닐까요?

박 교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죠. 조만간 그들과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제 직감은 거의 빗나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한우리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우리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점점 박 교수와 거리를 둔다. 통화가 끝나고 다시 박 교수의 옆으로 온다.

한우리 오랜만의 친구 전화네요.

박 교수 (직지 책을 펼치며) 여기에도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한우리 뭔가 짐작 가는 것이 있나요?

박 교수 이 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감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한우리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박 교수 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우리 그럼 저쪽에서 하고 계세요. 주변에 혹시나 모르니까 돌아보고 올게요. (원두막을 가리킨다.)

박 교수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해요.

한우리 산책코스를 따라 멀어진다. 박 교수 원두막 위에 문서들을 펼친다. 머리를 긁적인다.

S# 15.

문암 생태공원 주차장.

검은 차 두 대가 들어온다. 그리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장정 여섯 명이 내린다. 그리고 산책코스에 올라선다.

카메라 앵글이 산책 코스를 따라 가며 한우리를 비춘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산책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박 교수가 있는 원두막을 비춘다. 박 교수가 갑자기 이마를 손바닥으로 친다.

S# 16.

문암 생태공원 산책코스.

한우리 전화기를 끊고 뛰어서 주차장을 향한다.

S# 17.

문암 생태공원 원두막.

박 교수는 직지 사본을 든다. 사본에 있는 한자 모양이 다른 글자들과 형태가 다른 것들을 나열해서 적는다. 그리고 사본에 있는 글자들에 금속활자를 맞춰본다. 모양이 꼭 맞는다. 다음의 글자가 나열된 것을 메모하여 주머니에 넣는다. 그런 그의 뒤쪽에 검은 양복의 사내 넷이 도착한다.

S# 18.

문암 생태공원 주차장.

박 교수가 검은 정장 사내 둘에게 팔을 잡힌 채 나타난다. 뒤에 들은 박 교수의 짐을 들고 있다. 박 교수 눈에 보이는 것은 붙들려 있는 한우리.

한우리 이거 놓으세요!

박 교수 혹시 이틀인가요?

한우리 (처진 목소리로) 네. 맞아요.

박 교수 왜 이러는 거요.

검은 정장1 조용히 따라오게.

박 교수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순순히 따라갈 것 같소?

검은 정장2 (발로 박 교수 다리를 걷어차며) 말로 안 되면 이럴 수밖에.

한우리 (저항하며) 이거 놔.

검은 정장3 (한우리 팔을 꺾으며) 차에 타라.

앞차에 한우리. 뒤차에 박 교수. 억지로 탄다. 차에 앉은 박 교수 무릎 위에 자료들을 떨어뜨린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 타고 차 문이 닫힌다.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S# 19.

박 교수가 탄 차 안.

아무도 말이 없다. 박 교수의 몸이 덜덜 떨린다. 박 교수 고개를 숙이고 있다.

S# 20.

한우리가 탄 차 안.

한우리 휴대폰을 들고 있다. 누군가와 통화중이다.

S# 21.

청주 킥텍스 공장 안 빈 창고.

한우리와 박 교수를 태운 차들이 창고 안까지 들어간다. 창고 안에서 문이 닫힌다. 불이 하나 켜진다. 어두웠던

창고 안이 보이기 시작한다. 불빛 아래에 의자가 하나 있고 노인이 한 사람 앉아있다. 그리고 양 옆으로 검은 정장의 사내가 열 명 서있다. 차에서 박 교수와 한우리를 데리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내린다. 박 교수와 한우리를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 앞에 세운다.

한우리 우릴 놓아달라고! 검은 정장 사내들을 뿌리친다)

검은 정장1 가만있어! (한우리 뺨을 때린다.)

한우리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진다.)

박 교수 매너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 당신들 이견 유괴야! (반항한다.)

검은 정장3 가만있으라니까! (발로 박 교수의 다리를 찬다.)

박 교수 (무릎을 꿇는다.)

노인 내가 홍건적 수장이라네.

한우리 우릴 놓아줘요.

홍건적 수장 그건 안 되지.

박 교수 원하는 게 뭐요?

홍건적 수장 당신이 가진 금속활자.

박 교수 대체 그게 왜 필요한 거요?

홍건적 수장 그건 알 거 없고 내놓거나 하게.

박 교수 이미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는 풀어주시요.

홍건적 수장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박 교수 무엇을 말이요.

홍건적 수장 그것은 오래전의 강력한 힘을 찾는 열쇠라는 것은 알 텐데.

박 교수 열쇠 말입니까?

홍건적 수장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못 갔나 보군. 뭐 좋네. 잠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한우리 그런 것은 어찌 해도 좋으니 우릴 풀어줘요.

홍건적 수장 그건 내가 정할 일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말일세.

박 교수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려 드리겠소. 그러니 여자는 놓아 주시죠.

홍건적 수장 아니.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보험이랄까. 우선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합쳐서 찾아주기를 바라다네. 고대의 물건을 말일세.

박 교수 그렇다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요.

홍건적 수장 이 이야기는 말일세. 오랜 역사 속에 고려가 숨겨왔던 일이지. 긴 이야기가 될 걸세.

S# 21.

고려 홍건적의 난.

붉은 띠를 맨 병사들이 일제히 도망가고 고려 병사들이 그들을 쫓는다. 붉은 띠를 맨 병사들에게만 비가 쏟아진다. 주위가 폭발하고 연기가 오른다. 쓰러지는 붉은 띠를 맨 병사들. 앞에 등장한 강에 고립된다. 구석에 몰린 붉은 띠를 맨 병사들. 갑옷을 벗으며 물속으로 뛰어들다. 고려 병사들. 그런 그들을 강 앞에 도착해서 바라본다. 물이 차올라서 한 발 물러선다. 강물에만 비가 마구 쏟아진다.

S# 22.

고려 성 안.

왕과 신하들이 서있는 곳에 깃발을 맨 병사가 들어온다. 무릎 꿇는다.

깃발 병사 모두 퇴치하였습니다.

공민왕 수고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신하들 사이에서 스님 한 분이 나온다.

경한 그 물건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공민왕 그렇다면 경한 스님께서서 순리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경한 스님. 고개를 끄덕이고는 궁을 나온다.

S# 23.

합천 해인사.

경한이 절 내로 들어온다. 절은 보수작업 중이다. 그리고 노승 한 분이 나온다.

경한 복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노승 오! 백운 화상 아니십니까. 그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목판들이 타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군요.

경한 그것 참 큰일이군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일지도. 그러나 우리는 경전을 복구해야 합니다. 더불 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구해야겠지요.

노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소승 역시 부처님께서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한 그것이 아니라면 경고겠지요.

노승 폐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경한 아무래도 그 힘은 위험하다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기라 하셨지요.

노승 지금 문명을 뛰어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까.

경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도 근처의 절이 아닌 손이 닿지 않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심인 곳 말이죠.

노승 그렇다면 서원경이 어떠신지요. 삼면이 산이고 바다와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경한 한 번 찾아가 봐야겠군요. 그럼 스님 소승은 바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 아직 홍건적의 잔당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경한 스님께서도 해인사 복구를 잘 하시기를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경한 해인사를 떠난다.

S# 24.

청주 흥덕사.

절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조용한 가운데 종소리가 울려온다. 법당에서 젊은 스님 넷이 나온다. 그곳에 경한이 도착한다.

경한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

젊은 스님들 함께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

젊은 스님1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경한 나라 일로 왔습니다. 혹시 주지스님은 안 계신지요.

젊은 스님2 지금 저희는 주지스님이 없습니다.

경한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스님3 갑자기 입적하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 입적하셨습니다.

경한 아. 부처님 곁으로 가셨군요.

젊은 스님4 그러니 용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그럼 들려드리오리다. 폐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곳에 중요한 것을 숨기려 합니다. 스님들께서 이곳의 지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승을 도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젊은 스님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S# 25.

흥건적 막사.

간부로 보이는 사람 셋이 모여 있다. 테이블 앞에 지도가 펼쳐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서있다.

간부1 젠장. 이렇게 실패하다니.

간부2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만만히 본 것 같소.

간부3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래도 너무 일방적이었어. 그래서 원나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는 않았던 모양이군.

간부1 우선 동태를 살피기 위해 첩자를 심어야겠어.

간부2 누구를 보낼 건데?

간부3 그쪽 사람으로 보내야 하겠지.

간부1 좋아. 그럼 그 사람만한 인물이 또 없지.

간부2 누구?

간부1 왜 있잖아. 고려에서 잡아온 놈 말이지.

간부3 팬찮을까?

간부1 걱정하지 마. 인질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웃음소리가 울린다. (암전)

S# 27.

고려 궁내.

왕 앞으로 경한이 찾아온다.

경한 드디어 숨겼습니다.

공민왕 적당한 장소가 있었는지요.

경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민왕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혹시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으셨는지요.

경한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공민왕 그럼 영영 잊혀지는 것입니까.

경한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후세에도 가져서는 안 되는 힘이겠지요. 그 힘은 악용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공민왕 그렇다면 그것을 덮어둘 일을 만들어야겠군요.

경한 저는 그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 그렇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스님께서 그곳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민왕 활자를 새로 개편하고 싶군요. 지난 날,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목판마저 말이죠.

경한 그렇다면 불에도 타지 않는 판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군요.

공민왕 그렇습니다. 대신 스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지금은 모두 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경한 알겠습니다. 대충 방법을 생각해둔 것은 있습니다.

공민왕 스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경한 궁내를 빠져나간다.

공민왕 (혼잣말로) 여기서도 준비해야겠지.

암전

S# 28.

고려 수도 시장.

경한. 주막에 들른다.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한 사내를 유심히 바라본다. 사내는 커다란 등짐을 옆에 내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턱수염이 덩수룩한 사내다. 자루에서 빠져나온 금속이 눈에 띈다. 경한. 사내에게 다가간다.

경한 실례합니다만. 혹시 대장장이신지요.

대장장이 그렇습니다만.

경한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대장장이 무기에서 생필품까지 못 만드는 것은 없다.
 경한 혹시 의뢰도 받으시는지요.
 대장장이 뭐 부탁하실 거라도 있으시오?
 경한 나라에서 부탁하는 일입니다.
 대장장이 허. 그거 돈 좀 되겠군요.
 경한 그럼 도와주시는 겁니까.
 대장장이 뭐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यो?
 경한 따라오시오.

경한. 대장장이와 자리를 일어나 주막을 나간다.

S# 29.

어느 시골길.

경한과 대장장이. 길을 걷고 있다. 그 때 하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온다. 대장장이. 팔을 뻗자 비둘기가 앉는다. 다리에는 편지가 묶여있다.

경한 연락책입니까.
 대장장이 원래는 집이 따로 있으니까 말ियो.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오. 뭐, 북쪽에서 생활하다보면 이게 흔한 일이니까 말ियो. 그나저나 스님. 아직 멀었소?
 경한 아직 더 가야 하오. 몰래 하는 일이라 폐하께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으니까 말ियो.
 대장장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가족들에게 잘 있다는 표시를 알려야 하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등짐에서 검은 색 천을 비둘기 다리에 매고는 보내준다.) 뭐, 잘 살아있다고만 알리면 되지요. 허허허.

경한. 대장장이를 유심히 살핀다. 그러더니 다시 걸음을 옮긴다.

S# 30.

청주 흥덕사.

경한. 대장장이와 경당에 도착한다. 앞에는 젊은 스님 넷이 기다리고 있다.

젊은 스님1 무사히 다녀오셨는지요.
 경한 그렇습니다. 별 일 없었는지요.
 젊은 스님2 여기야 늘 그렇죠.
 젊은 스님3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은 뉘신지요.
 경한 이번에 폐하께서 내리신 일을 함께 하실 분이랄요.
 젊은 스님4 어서 오십시오. 우선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 알겠습니다.

젊은 스님4를 따라 대장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경한. 그런 대장장이를 주시한다.

젊은 스님1 그런데 폐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경한 이번에는 불에 타지 않는 활자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달라 하시더군요.
 젊은 스님2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한 만들어야지요. 방법은 있습니다.
 젊은 스님3 저희는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폐하께서 명하셨다면 중요한 일이겠군요.
 경한 맞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젊은 스님1 스님께서도 여기 계시는 겁니까.
 경한 소승은 이번에 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디 그 때까지는 묻지도 말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스님2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시오.
 경한 저 대장장이 분과 함께 금속으로 활자를 만드는 일을 해주었으면 하오. 불에 타지 않는 경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젊은 스님3 알겠습니다. 그럼 대장장이 분에게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암전)

S# 31.

자막 - 한 달 후

청주 흥덕사 건물 안.

건물 내에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대장장이. 수염이 더 덥수룩해져 있다. 땀을 흘리며 쇳물을 틀에 붓는다. 작업이 끝나고 옆에 다른 틀을 든다. 그리고 망치로 살살 부수자 속에 금속이 나타난다.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낸다. 그리고 땀을 닦더니 그것들을 들고 절 마당으로 나간다.

대장장이 스님! 스님!

S# 32.

청주 흥덕사 마당.

스님들이 마당을 즐기고 있다. 대장장이 달려 나온다. 스님들 일제히 대장장이를 바라본다.

대장장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젊은 스님1 그렇습니까.

젊은 스님2 결국은 성공했군요.

젊은 스님3 어떤 공정을 거친 것인가요.

대장장이 우선 나무로 판 후 데운 밀랍을 부었수다. 그리고 나무판을 떼어내고 금속을 부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찰흙을 빚고 그걸로 밀랍을 감쌌수다. 그것을 구워낸 뒤 밀랍을 녹이고 거기에 금속을 녹여 부으니 가능하더이다. 하하하. 계속 쇳물을 버틸 그릇을 다른 곳에서 찾았는데 말이오.

젊은 스님1 대단합니다.

젊은 스님2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젊은 스님3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책들도 이렇게 만들어내야겠지요.

대장장이 일이 끝났으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때 마당으로 경한이 나타난다.

경한 일이 잘 끝난 것 같군요.

대장장이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생각이외다.

경한 그렇다면 돌아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무슨 일입니까.

경한 혹시 청주 한씨 아닙니까.

대장장이 아니 그걸 어떻게……

경한 소송의 직감이란 것입니다.

대장장이 가족들은 북쪽에 있지만 말이요.

경한 혹시 홍건적에게 가족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요?

대장장이 (대답이 없다. 어깨만 흔들릴 뿐이다.)

경한 그렇군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장장이 스님. 제 딸이 인질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우리가 숨긴 무기에 대한 정보를 빼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요.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한 좋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따님을 구하러 가시지요.

대장장이 스님 제발 제 딸만은 구해 주십시오. 여기 일은 저희 친척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한 그럼 얼른 채비를 하십시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대장장이 알겠습니다.

경한 다른 스님들께는 이 책을 맡기겠습니다. 이 책을 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절 안에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이 서찰에 적힌 것을 읽어 주십시오. 그럼 소송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 33.

고려 궁내.

왕 앞으로 나온 경한과 대장장이.

공민왕 어떻게 되었소?

경한 모두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공민왕 그럼. 이제 짐도 하려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구려.

경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공민왕 무엇이요.

경한 최영 장군을 빌려주십시오. 비밀리에 할 일이 있습니다.

공민왕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경한 새로운 활자를 만든 대장장이의 아이가 홍건적 잔당에게 붙들려 있다 합니다. 그에게 보상으로 아이를 찾아주려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공민왕 알겠소. 여봐라. 즉시 최영 장군을 부르도록 하라.

신하 하나가 밖으로 나가고 조금 뒤 최영 장군 들어온다.

공민왕 최영 장군. 지금부터 임무가 있네. 과인을 위해 경한 스님을 도와주도록 하게.

최영 그 말씀 받들겠나이다.

S# 34.

북방 홍건적 막사 밖.

최영. 주변을 살피고는 막사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막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위로 든다. 경한과 대장장이 나타난다. 막사 뒤쪽으로 이동한다. 최영 비어있는 막사에 불을 지른다. 셋은 바로 막사 사이로 이동한다. 불을 지른 막사로부터 멀어진다. 주위가 요란해지면서 홍건적들이 불타는 막사로 모여든다. 그들이 불을 끄는 동안 경한 일행 맨 끝에 있는 막사로 이동한다. 막사를 젖히고 들어간다. 젊은 여자가 한 명 울고 있다. 대장장이 안으로 뛰어든다. 여자를 끌어안는다.

경한 자네 딸인가?

대장장이 (울면서) 예.

최영 얼른 여기서 빠져 나가죠.

여자 (대장장이를 뿌리치며) 갈 수 없어요.

대장장이 이제 괜찮아. 고향으로 가는 거다.

여자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대장장이 그게 무슨 말이나?

여자 제 안에는 저들의 핏줄이 들어와 있어요.

대장장이 그게 무슨……

여자 제 뱃속에 저들의 아이기 있대구요. (울부짖는다.)

대장장이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본다.)

경한 아미타불.

최영 지금 나가지 않으면 붙잡힐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주위가 요란해지더니 홍건적 간부 셋이 등장.

간부1 네놈의 역할은 끝났다.

간부2 자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최영 그럴 수는 없지.

경한 지금 당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소.

대장장이 손 하나 대지 않겠다고 했잖소.

간부3 참 순진하군. 그 약속을 믿었던 말인가. 하하하.

경한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시게.

간부1 중놈이 어디서 설교야? 지금 네 목숨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경한 아미타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구려.
최영 스님. 스님만은 살아 돌아가야 합니다.
간부2 어딜 도망가려고.
대장장이 두 분은 가십시오. 제가 저들을 막을 터이니 어서!
간부3 입만 살았구나.
대장장이 스님.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한 약속드리리다.

대장장이 붓집에서 망치를 꺼낸다. 여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최영 경한을 데리고 사라진다. 그리고 간부 셋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간부들의 칼에 쓰러진다. 여자 대장장이에게 다가와서 손을 떼다. 얼굴을 만진다. 오열한다.

S# 35.

고려 궁내.
왕이 남자를 옆에 앉히고 있다. 곧 최영과 경한 들어온다.

공민왕 과인이 오늘은 기분이 좋네만.
경한 폐하. 이 무슨 모습입니까.
공민왕 (술잔을 들며) 과인이 이제 세상과 하직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오.
경한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민왕 경한 스님을 제외하고 모두 물러가라.

신하들 모두 나간다. 최영 역시 고개를 숙인 뒤 나간다.

공민왕 너도 나가 있거라.

공민왕 옆에 있던 소년도 나간다.

경한 무슨 일이십니까.
공민왕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스님만 알고 계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인이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합니다. 힘은 또 다른 힘을 부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옥좌에서 내려가고 싶군요. 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묻히기를 바랍니다. 스님께 다음을 부탁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하오나 폐하께오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공민왕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과인의 마지막 역할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경한 그렇게 결심이 굳으시니 소승은 더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
공민왕 그동안의 가르침. 감사했습니다.
경한 그럼 소승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밖으로 나간다. 밖에 나오자 최영이 있다. 경한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간다. 최영 고개를 끄덕인다. 경한 목탁을 두드리며 나온다.

S# 36.

현재. 공장 창고.

홍건적 수장이 의자에 앉아 있고 박 교수와 한우리 무릎을 꿇은 채로 있다. 양 옆에 늘어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홍건적 수장 고려 시대의 이야기는 이렇다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지.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숨긴 것은 못 찾았던 말이지. 무엇인지조차 좀처럼 감이 오지 않지. 그래서 자네에게 시간을 주려 한다네. 이보게. 교수 양반. 우리는 단지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네. 시간을 주지. 거기. 비밀 거처로 가서 자료들을 넣어주고 가둬두게. 명심하게. 자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장소를 찾는 후라네.

박 교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

홍건적 수장 만약에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는 걸 명심하게나.

한우리 비겁한 놈들!

저항하는 한우리 차에 태워진다. 차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박 교수 역시 정장의 사내 둘에게 이끌려 차에 탄다. 차는 공장을 빠져나간다.

S# 37.

홍건적 비밀 거처.

어느 방. 박 교수 방안으로 밀쳐져 들어온다. 그리고 자료들이 바닥에 흩뿌려 떨어진다. 방 안에는 책상 의자 하나씩 그리고 스탠드가 하나 있다. 창문조차 없다. 박 교수는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줍는다. 그리고 스탠드 불빛 위로 직지로 시작해서 논문자료의 순으로 올려놓는다. 그리고 서서 방 안을 팔짱을 낀 채 서성인다. 그러다 직지 하권 사본을 펼친다.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낸다. 직지의 글자가 적혀있다. 그리고 펜을 꺼낸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완성된 종이와 금속활자를 함께 주머니에 넣는다.

S# 38.

홍건적 비밀 거처.

박 교수의 시선. 어둡다. 눈을 깜박이자 책상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밖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한우리가 들어온다.

박 교수 어……어떻게.

한우리 탈출했죠. 어서 나가요. 곧 들이닥칠 거예요.

박 교수 잠깐 자료 좀 챙기고요. (쓸어 담듯이 품에 안는다.)

한우리 먼저 밖으로 나가고 박 교수 역시 뒤를 따른다.

S# 39.

홍건적 비밀 거처 밖.

검은 차 한 대가 서있고 한우리 먼저 차 앞에 도착한다. 차에 시동을 건다. 박 교수 급히 차에 오른다.

S# 40.

검은 차 안.

박 교수 숨을 돌린다. 한우리 운전한다. 미러를 확인하더니 엑셀을 과격하게 밟는다. 그리고 길을 복잡하게 돌아서 빠져나간다.

박 교수 어떻게 탈출한 거요?

한우리 저들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감금하고도 감시가 삼엄하지 않아서 지키고 있던 경비 하나를 유인한 뒤 나 대신 가두고 뛰쳐나왔죠. 제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씨 가문은 대대로 유물을 지켜온 집안이고 정보를 얻을 곳은 많으니까요.

박 교수 아무튼 고맙소. 빛을 졌구려.

한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더 얻은 것은 없나요?

박 교수 실은 홍덕사지에 갔으면 합니다만.

한우리 거기에 뭔가 있는 건가요?

박 교수 어쩌면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죠.

한우리 좋아요. 대신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하세요.

박 교수 아직도 따라오는 자들이 있나요?

한우리 아니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박 교수 고개를 끄덕인다. 차 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자동차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

S# 41.

홍덕사지 주차장.

검은 차가 들어와 선다. 박 교수와 한우리. 내려서 홍덕사지 안으로 들어간다. 계단에 올라서 절터에 도착한다.

박 교수. 주위를 돈다. 중심에 서더니 휴대폰을 꺼낸다.

한우리 뭔가 단서가 있나요?

박 교수 일단 지도로 비교해 보는 중이요.

한우리 뭔가 단서를 잡은 것이 맞군요.

박 교수 여기서 남동쪽이……

한우리 남동쪽이라면 아마 저쪽 방향일거예요. (청주 시내 방향을 가리킨다.)

박 교수 그렇군요. 그럼 대강의 거리를 체크하고 직선거리로 그어보면 찾았……다.

한우리 무엇이지요?

박 교수 비밀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소.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 것 같소?

한우리 청주 시내라면 성안길과 꽃다리. 그리고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지요. 앗! 철당간?
박 교수 철당간이 지어진 시기를 아시오?
한우리 글썽요?
박 교수 고려 광종 때 지어진 것이요. 고려의 역사 속에 있던 것이라오. 그렇다면 그곳에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오.
한우리 그렇군요. 그럼 얼른 출발하도록 해요.
박 교수 그 전에 잠시만.

박 교수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절터의 복원도를 본다.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고는 옆의 고인쇄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S# 42.

고인쇄박물관 내부.

입구에서 팸플릿을 받아들고는 안으로 들어간다. 인쇄과정의 지역을 지나서 이 층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직원이 한 사람 있다.

박 교수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관계되지 않은 전시물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직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가시면 바벨탑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박 교수 잠시 그곳에 볼 일이 있는데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직원 무슨 일이시죠?
박 교수 (명함을 내밀며) 사실 이번에 직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직원 아 그러십니까. 일단 함께 가시죠.

바벨탑 모형에 도착한다. 박 교수 열심히 읽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속활자를 꺼낸다. 그리고 글자를 비교해 본다.

박 교수 찾았다. 잠깐 안에 들여다 볼 수 없나요?
직원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죄송합니다.
박 교수 저게 있어야 직지의 행방을 알 수 있을 텐데.
직원 직지가 숨겨져 있는 곳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까?
박 교수 아마 확실할 겁니다.
직원 잠시만요. 제가 직접 들어가도록 하죠.

직원 사라졌다가 유리 뒤로 나타난다. 박 교수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가리킨다. 다른 글자들과 다르게 한자 비슷한 글자가 쓰여 있다. 직원이 손을 뻗어 잡아당기자 글씨가 빠진다.

박 교수 그것입니다.

직원 다시 유리 뒤로 사라진 뒤 다시 박 교수 앞에 나타난다. 직원이 건네주고 박 교수는 받아서 유심히 살핀다.

박 교수 무언가 빠진 것 중 하나군요.
직원 혹시 가져가실 겁니까?
박 교수 잠시 빌리는 것으로 하죠. 제 명함 드렸죠. 반드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박 교수 교수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죠.

박 교수 고인쇄박물관을 빠져나온다.

S# 43.

고인쇄박물관 주차장.

한우리가 벌써 차에 타 있다. 박 교수 차에 타지 않고 바로 주차장 밖으로 나간다. 한우리 차를 몰아 박 교수를 쫓아간다. 박 교수에게 크랙션을 울리며 차를 옆에 세운다.

한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박 교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이죠.

박 교수 그대로 사거리의 신호등을 건너다. 앞에 홍덕 성당에 들어갔다 금방 나온다. 손에는 두꺼운 책이 들려 있다. 다시 신호등을 건너와 차에 탄다.

한우리 뭐예요?
박 교수 성경입니다. 아무래도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군요.
한우리 어떤 부분이 말이죠?
박 교수 성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 말이죠.
한우리 바벨탑이라면 인간의 욕망을 세웠다 신이 내친 이야기 아닌가요?
박 교수 정확히 말하자면 바벨탑은 모든 인간의 언어로 세워진 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인간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창조주는 사람들의 말을 섞어서 사방으로 흩어놓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마저 쪼개 나누어 사방으로 흩었다는 것이 되죠.
한우리 그것하고 직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박 교수 아직 가정일 뿐이지만 우리 민족만이 가졌던 지식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한우리 그렇다는 것은.
박 교수 그것이 강력한 병기라는 것이지요. 조금 짐작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에 좀 더 조사를 한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우리 알겠어요.

S# 44.

용두사지 철당간.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쪽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서 철당간 앞에 도착한 한우리와 박 교수. 철당간 앞에 선다.

한우리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있군요.
박 교수 여기에도 아마 단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도록 해요. 한자와는 다른 글씨 말이에요.
한우리 한자와 다르다니요?
박 교수 옛날 우리가 쓰던 언어. 신신문자 또는 신지문자라 하지요.
한우리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박 교수 아. 찾은 것 같군요.

박 교수 철당간의 난간을 넘어간다. 주머니에서 금속활자를 꺼내서 비교해본다.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본다.
한우리 주위를 살핀다. 박 교수 철당간의 위 아래를 더듬더니 옆의 틈새에서 금속활자를 꺼낸다.

박 교수 여기에 있었네.
한우리 다 됐으면 얼른 가야 할 것 같네요.
박 교수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군요.

박 교수 철당간 난간을 넘어 나온다. 검은 옷의 사내 둘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본다. 박 교수 한우리 손을 잡고 달린다. 청주 백화점 사이에 작은 길을 달려서 성안길 방향으로 달린다. 검은 옷의 사내 둘도 쫓아 달린다. 자동차가 나오는 길에서 좌측으로 꺾는다. 그리고 계속 직진하더니 성안길 안의 인파 속으로 섞여 달린다. 검은 옷의 사내 둘도 계속 쫓아온다. 계속 달리다가 로테오 거리에 들어서기 전에 좌측으로 다시 꺾어 달린다. 계속 달려서 CGV영화관 안으로 들어간다. 상영관 방향으로 뛰어간다. 제지하는 안내원을 밀치고 처음 보이는 상영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숨을 돌리고는 자세를 낮추고 상영관 위쪽의 의자 구석에 앉는다.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앉아 있는 동안 위에 걸친 코트를 벗는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본다. 박 교수 갑자기 고개를 돌려 한우리 입술에 키스한다.

한우리 무……무슨
박 교수 잠시만. 가만히 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 둘. 주위를 둘러보더니 출구 방향으로 달려 나간다. 박 교수 입술을 떼고는 주위를 살핀다.

박 교수 간 것 같군요. 좀 전에는 미안했습니다.

한우리 대답이 없다. 박 교수 한우리의 손을 잡은 채로 출구로 조심스럽게 나간다.

S# 45.

로테오 거리.
한우리, 박 교수 주변을 살피며 들어선다. 급히 한 의류 매장으로 들어간다.

박 교수 아무래도 복장을 바꿔야 할 것 같군요.

한우리 대답이 없다. 조용히 옷을 고른다. 마네킹에 걸려 있는 원피스를 집는다. 잠시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박 교수는 캐주얼 정장을 손에 쥘다. 다른 방에서 갈아입고 나온다. 박 교수 카드로 계산이 되고 매장을 나온다.

박 교수 그림 차로 갑시다.

천천히 걸어간다.

S# 46.

차 안.

박 교수와 한우리 차안에 탄다. 정적이 잠시 흐른다.

박 교수 아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잠시 정적

박 교수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요?

한우리 아……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박 교수 예?

한우리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군요.

박 교수 무슨 말인지.

한우리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박 교수 혹시 당신이 홍건적과 한 편이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한우리 그걸 어떻게……

박 교수 조금 일찍 알게 되었어요. 뭐랄까. 아 그 때. 홍건적 수장을 만났을 때 당신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한우리 그런데 왜.

박 교수 예?

한우리 지금까지 모르는 척 한 거죠?

박 교수 그거야 당신의 눈 때문이죠.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사람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홍건적 수장 앞에서는 좀 두려웠지요. 살기가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우리 그렇다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겠군요.

박 교수 어렵듯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철없는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한우리 저희 아빠하고는 어떤 관계였나요?

박 교수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였겠지요.

한우리 지금이라도 좋으니 달아나도록 해요. 아직까지 저도 홍건적의 내부까지는 접근하지 못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박 교수 그것보다 역사란 참 대단하군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얹히게 하는 능력이 있을 줄이야.

한우리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박 교수 당신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홍건적 수장이 했던 이야기를 말이죠. 한씨 가문에서 임신한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홍건적의 아이를. 그 핏줄이 아마도 당신하고 이어져 있을 거예요. 전에

스승님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주스런 핏줄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우리 그렇다는 건.

박 교수 홍건적들은 그걸 알고 당신의 아버님께 접근했던 것이고 그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셨던 그분은 당신이 아닌 내게 열쇠를 주신 거죠.

한우리 그렇다는 것은.

박 교수 당신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셨을 거예요.

한우리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죠?

박 교수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의 아버님을 알고 지냈어요. 물론 스승과 제자로서 그분의 생각을 이어받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한우리 당신이 처음에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당신은 아빠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 자, 그럼. 하던 일을 계속 해야죠.

한우리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차가 출발한다.

S# 47.

차 안.

두 사람. 운전하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박 교수 지금까지 모인 자료들로 볼 때 무언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한우리 무엇을 말이죠?

박 교수 아까 철당간에서 찾은 금속활자 말입니다. 거기에 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우리 짐작 가는 것은 있나요?

박 교수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고려의 이야기 말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더 있는 것 같군요. 역사서적에는 공민왕이 처음에는 정치도 잘하는 왕이었지만 결국 후에는 망가져서 암살당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홍건적 수장이 이야기했던 그 상황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있던 것일까요? 그 시대부터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것 중에는 직지보다 앞서서 금속활자가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물론 그를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게다가 경운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경한 스님은 국사를 거부했던 인물이며 이미 다른 절의 주지로 있었어요. 무념과 무심을 가르치신 분이시구요. 역사에 그 정도로 관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꼭 그러기만 했다는 보장은 없지요. 게다가 금속활자로 직지를 찍어낸 사람은 경한 스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진실에 다가서면 우리가 찾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우리 그럼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뭐죠?

박 교수 일단 바벨탑에서는 모든 언어가 갈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알타이어도 에스파냐어도 처음에는 하나의 뿌리였다는 말이죠. 신이 노여워할 일은 바벨탑으로 신의 높이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로 올라가 봤자 우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의 바벨탑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의 지혜라던가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같은 것 말입니다.

한우리 좀 어렵네요.

박 교수 쉽게 설명하자면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인간을 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말.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가졌던 특별한 능력을 쓰는 방법 같은 것을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한우리 우리 인간의 숨겨진 힘 말인가요?

박 교수 쉽게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한우리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민왕은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 했어요.

박 교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왕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우리 그렇다면 직지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박 교수 홍건적 수장의 말이 옳은 것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은 최영 장군의 존재입니다. 당시 최영 장군이 유명해진 것은 공민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은 고려와 운명을 같이 했고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금속활자가 활성화 되었고요.

한우리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박 교수 홍건적 수장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고려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공민왕이 미친 것처럼 행동한 것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병기를 숨긴 사실을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후세의 다른 이들은 모르는 사실이지요. 당시의 고려에 대한 이야기는 홍건적들 사이에 서는 커다란 일이었기에 대대로 전해진 이야기일 겁니다.

한우리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다면.

박 교수 숨겨진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 정보가 사실이 되는 것이죠.

한우리 흥덕사에서 철당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된 것이죠?

박 교수 갈혀 있을 때 직지 하권 사본에서 찾은 글자 때문이죠. 글자가 조금씩 다른 문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자로 용용 자와 머리 두자 그리고 동녘 동 자와 남녘 남 자. 최종으로는 다섯 오 자와 마을 리 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찾기 쉬웠지요.

한우리 그럼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장소도 찾았나요?

박 교수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죠.

한우리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요.

박 교수 아마 사직 사거리 쪽이 기름 넣기 수월할 거예요.

한우리 그리로 가도록 하지요.

S# 48.

청주 사직동 사거리의 주유소.

사람들이 직접 주유를 하고 있다. 차를 세우자 박 교수가 직접 내려 차에 기름을 넣는다. 기름이 들어가기를 기다린 후 호스를 빼고 주유구를 닫는다. 다시 차에 탄다. 차는 외곽을 향해 달린다.

S# 49.

차 안.

밖이 제법 어두워진다.

한우리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겠네요.

박 교수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겪는군요.

한우리 아마 잠이라도 자고 일어난다면 뭔가 깨닫는 것이 있겠지요.

박 교수 그럼 어디로 갈 건가요?

한우리 대청호가 있는 곳으로 가죠. 인적이 드문 곳이니 안전할 거예요.

박 교수 대청호 쪽 말이죠. 뭐 운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점점 더 어두워진다.

S# 50.

대청호 외곽 한 모텔.

검은 차 들어온다. 차에서 내리는 그림자 둘이 모텔 안으로 들어간다.

날씨는 이미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S# 51.

모텔 안.

카운터 앞에 박 교수 선다. 모텔 주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더니 열쇠를 건넨다. 아무 말 없이 안쪽의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복도를 따라 이동한 후 박 교수는 열쇠와 방 번호를 번갈아 보더니 문을 연다. 방안으로 들어간다.

박 교수 먼저 씻으실 건가요?

한우리 먼저 씻으세요.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박 교수 알겠습니다.

박 교수 욕실로 들어간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고 한우리 텔레비전을 켜다. 뉴스가 나온다.

뉴스 앵커 직지보다 앞선 금속활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속활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직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청주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진짜일 여부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리 저것 발견한 사람. 뭔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린다.)

채널을 돌린다. 개그 프로그램이 나온다. 한우리 잠시 그것을 보면서 웃는다. 다시 채널을 돌린다. 그러더니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S# 52.

모텔 안.

박 교수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온다.

박 교수 다 씻었습니다.

한우리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혹시 직지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압니까?

박 교수 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가짜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 같지요.

한우리 그래요? 혹시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했는데.

박 교수 한 번 만나볼 필요는 있지요.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한우리 내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박 교수 남권희 교수라고 했지요? 분명히.

한우리 경북대 교수라더군요.

박 교수 내일 한 번 찾아가 봅시다. 긴 여정이 될 것 같군요. 그럼 오늘은 일찍 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리 저도 씻고 나오도록 하지요.

한우리 욕실로 들어간다. 박 교수 그대로 침대 위에 눕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S# 53.

모텔 안.

한우리가 씻고 나왔을 때 박 교수는 잠들어 있다. 한참 서서 박 교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잠시 그렇게 서 있다. 그리고 박 교수에게 다가간다. 박 교수의 얼굴에 손을 댄다. 불을 끈다. 그리고 박 교수 옆에 눕는다. 박 교수를 안은 채 잠이 든다.

S# 54.

모텔 안. 아침.

침대 위에는 박 교수는 혼자 누워있다. 한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박 교수가 일어난다. 커튼을 젖힌다. 그리고 시계를 본다. 시계는 열 시를 가리키고 있다.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 욕실을 향한다. 칫솔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온다. 그 때 문이 열리며 한우리 들어온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다.

한우리 요기할 것 좀 가려 갔다 왔어요.

박 교수가 다시 욕실로 들어간다. 조금 뒤 욕실에서 나온다.

박 교수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한우리 그래요.

박 교수와 한우리가 방을 나선다.

S# 55.

모텔 앞.

한우리 박 교수 차에 탄다. 차는 출발하더니 상주로 빠지는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차 안에서 둘의 대화가 이어진다.

박 교수 막상 가도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한우리 그래도 가봐야죠. 중요한 문제니까요.

박 교수 어쩌면 경한 스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우리 그게 무슨 말이죠?

박 교수 원래 경한 스님이 주지로 있던 곳이 경상도 지역의 절이었으니까요.

한우리 그렇다면 원래는 그곳에 숨기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군요.

박 교수 그렇다면 이곳과 비슷한 흔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우리 그래서 가보자고 한 것이군요.

박 교수 하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청주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한우리 오늘은 잠도 폭 잤으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박 교수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찾은 것은 금속활자 두 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속 활자와 합치면 딱 열 개가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금속활자들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리 병기를 찾는 열쇠란 말인가요?

박 교수 아니요. 진짜 열쇠 말입니다. 봉인된 문을 열기 위한. 찾기 위한 키워드가 아니라 말이죠.

한우리 참. 철당간은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이지요?

박 교수 행주형국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한우리 글썽요.

박 교수 풍수학자들이 우리나라가 행주형국의 형태로 생겼다고 하지요. 즉 행주형국은 배의 모양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한우리 그것과 철당간의 관계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박 교수 철당간이 무엇이나 하면 배의 돛대와 같은 겁니다. 배가 순항하기 위한.

한우리 아.

박 교수 잠깐만요. 배? 행주형국? 그리고 홍수 설화.

한우리 뭐예요?

박 교수 조금만……조금만 연결해 보면 보일 것도 같은데.

한우리 무엇을요?

박 교수 (무릎을 치며) 이제야 그 관계에 대한 가설이 섰습니다.

한우리 쉽게 설명해 주세요.

박 교수 철당간이 세워지게 된 설화가 있어요. 청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게 생겼는데 철당간을 세우자 비가 멈추었다는 설화지요.

한우리 그 설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박 교수 홍건적 수장이 이야기 기억나죠. 처음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자신들에게만 비가 쏟아졌다고.

한우리 그렇다는 것은?

박 교수 아마 숨겨져 있는 것은 비를 조절할 수 있는 물건이겠지요.

한우리 그런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박 교수 그러니까 신의 병기가 아닐까요?
한우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군요.
박 교수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한우리 실제로 세워진 철당간이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박 교수 글썽요. 검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한우리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를 그치게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다른 물건의 능력을 숨기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박 교수 그럴 수도 있어요.
한우리 이거 어쩌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박 교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홍건적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만. 그들이 아직도 고대의 물건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한우리 그 물건은 웬지 우리 민족이 꽤 오랫동안 자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 그러한 물건이란 것을 알았는데 꼭 찾아야 할까요? 아니 찾아야겠지요. 학자로서 진실을 밝힐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한우리 그래도 홍건적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박 교수 그건 그렇군요.

S# 56.

경복대 입구.

주차권을 뽑고는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인문학 건물에서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하고는 주차장에 차를 댄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박 교수 어떤 사람일까요.
한우리 만나보면 알게 되겠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남권희 교수라는 이름이 적힌 방에 노크를 한다. 반응이 없다. 문을 열려 하자 잠겨있다.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

한우리 아 저 사람.
박 교수 아무래도 저 사람인 것 같군요.

한우리 박 교수. 남권희에게 다가간다.

박 교수 남 교수님이십니까?
남권희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박 교수 저는 (명함을 내밀며) 이런 사람입니다.
남권희 (명함을 받아들고는) 아 교수님께서 제게 무슨 용무로.
박 교수 금속활자를 찾으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권희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박 교수 직지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남권희 멀리서 오셨지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박 교수 (주머니에서 검은 종이를 꺼내며) 혹시 이런 협박편지를 받으셨는지요.
남권희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그런 것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만 바빠서.
박 교수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금속활자는 어떤 경로로 찾으신 건가요?
남권희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바빠서.

남권희 교수 급하게 사라진다.

박 교수 여기서는 건질 것이 없군요.
한우리 다시 돌아가지요.

주차장을 향하는 두 사람. 남권희 교수.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박 교수와 한우리. 차에 오른다.

S# 57.

청주로 돌아가는 차 안.
박 교수가 운전대를 잡는다.

한우리 허탕 친 건가요?
박 교수 입막음 당한 것 같아요.
한우리 역시 흥건적일까요?
박 교수 십중팔구는 말이죠.
한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 교수 홍수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한우리 홍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물을 생각할 수 있겠고. 청주는 무심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흥이 방죽 역시 물과 관련이 있고요.
박 교수 웬지 원흥이 방죽 쪽이 관심이 가는군요.
한우리 그럼 일단 그곳으로 가기로 하지요.
박 교수 일단 부딪쳐보고 결정을 하지요.
한우리 그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교수님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거죠?
박 교수 뭐, 안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나 할까. 사랑은 느낌으로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말이죠. 하하.
한우리 그래도 이제는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박 교수 그러는 당신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 적정기는 한참 지났는데 말이요.
한우리 잘 아시잖아요. 제가 흥건적 단원으로 활동한 것과 아빠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박 교수 하지만 자세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요?
한우리 사실, 아빠는 제게 아무것도 알려 주려 하지 않았습시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약을 걸어버리고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죠. 그리고 그들과 마주친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말이죠.

박 교수 그것은.

한우리 예. 제 핏속에는 그들의 피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 말이죠.

박 교수 그렇다면 당신이 홍건적 수장이 말한 홍건적의 아이를 가진 한씨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군요.

한우리 그렇습니다. 왜 아빠가 우리의 핏줄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죽던 날, 나는 식장을 찾아갈 수 없었지요. 그때까지도 아빠를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교수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어 사는 것은 그만두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한우리 저한테 가능할까요?

박 교수 물론이죠.

한우리 (웃으며) 자상하시네요.

박 교수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은 한 번씩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S# 58.

원홍이 방죽.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온다. 차에서 내리기 전 한우리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한우리 그들에게요.

박 교수 일단 받고 그들의 편인 것처럼 하세요.

한우리 (전화를 받는다.) 예.

한참을 듣고만 있다.

한우리 지금 위치는 문의 상주 간 고속도로입니다.

다시 한참을 듣고 있다.

한우리 (전화를 끊으며) 이거 웬지 불안하네요.

박 교수 무엇 때문이죠?

한우리 웬지 배신한 것을 들킨 것 같아서요.

박 교수 어떤 반응이었나요?

한우리 어디에 있냐고 묻더니 보고가 늦는다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다고 하자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계속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박 교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방법은 우리가 간 곳 바로 전의 곳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우리 알았어요.

차에서 내린다. 원홍이 방죽의 코스를 따라 돌며 주위를 살핀다.

박 교수 원홍이 방죽에 얹힌 이야기들은 모두 두꺼비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두꺼비 생태공원이 된 이유도

그것이구요.

한우리 뭐가 찾는 것이 있나요?

박 교수 아니요. 헛짚은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한우리 할 수 없지요.

박 교수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주변의 절을 뒤희나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군요.

한우리 오늘 숙소는 어떻게 할까요?

박 교수 외곽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리 전에 그쪽으로 말인가요?

박 교수 아니요. 이번에는 가정동 쪽으로 나가서 가봅시다.

두 사람. 차에 탄다.

S# 59.

아침. 모텔 방안. 박 교수,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안겨있다. 팔에서부터 몸 쪽으로 시선이 간다. 얼굴을 본다. 한우리다. 박 교수 한참을 한우리의 입술을 바라본다. 한우리가 움직이자 얼른 눈을 감아버린다. 한우리 눈을 뜬다. 박 교수의 얼굴을 뻘히 쳐다본다. 박 교수의 뺨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 얼굴을 다가간다. 눈을 감고 있는 박 교수의 입술에 입술을 맞댄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우리 일어난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박 교수 눈을 뜬다. 손을 입술에 가져간다. 자리에서 허리를 세운다.

S# 60.

모텔 주차장.

한우리.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박 교수. 천천히 모텔 안에서 걸어 나온다.

한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보죠?

박 교수 (한우리 얼굴만 쳐다본다.)

한우리 교수님?

박 교수 아아. 미안해요. 잠깐 다른 생각 좀 하느라.

한우리 오늘 어디로 갈 거냐고요.

박 교수 일단 다시 철당간으로 갔으면 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한우리 그럼 출발해요.

박 교수 그러죠.

차에 탄다.

차는 곧 출발한다.

S# 61.

용두사지 철당간.

한우리와 박 교수. 철당간을 보고 서 있다.

수혁 어래? 여긴 어쩐 일이야?

뒤를 돌아보니 수혁이 서 있다.

박 교수 아아. 좀 일이 있어서.

수혁 직지 찾는 일은 잘 되시남?

박 교수 그게 말이지. 좀처럼 단서가 없네.

수혁 여기가 직지하고 관련된 것이 있어?

박 교수 그건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 되서 말이지.

한우리 금속활자와 관련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박 교수 좀 들어가 볼까.

수혁 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끌려가. 벌금 엄청 셀 텐데.

박 교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제 거의 근접한 것 같은데 말이야. 무언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말이야.

수혁 뭐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좀 한가해서 말이야. 심심하기도 하고.

박 교수 참 속 편해서 좋겠다. 아무 것도 안 하고도 잘 사니 말이야.

수혁 해해.

박 교수 칭찬 아니거든.

수혁 뭐 어때. 맞는 말인데.

한우리 교수님. 이것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조그만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다.

박 교수 하마터면 놓칠 뻔 했군요.

한우리 뭔가 짚이는 것 있나요?

박 교수 아마 그 장소밖에 안 남은 것 같군요.

한우리 그럼 얼른 가보도록 해요.

박 교수 그러기 전에 저들을 따돌려야 할 것 같아요.

한우리 앗. 오늘은 많아요.

수혁 뭐가 말이야?

박 교수 뛰어!

검은 정장의 무리가 오는데 열다섯 명이다. 그들 모두 우측에 빨간색 손수건을 꽂고 있다. 박 교수. 한우리의 손을 잡고 달린다. 수혁. 주위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 교수 일행의 뒤를 따른다.

일선문고 앞을 지나 막다른 곳에서 좌측으로 꺾는다. 달려가다 처음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꺾는다. 앞으로 달려간다. 은행을 지나쳤을 때 앞에서 검은 정장 네 명이 가로막는다. 가까스로 서서 좌측으로 달린다. 편도 일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골목으로 들어간다. 검은 정장 사내들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수혁이 박 교수 옆에 붙는다.

수혁 야! 너 뭘 짓을 한 거야? 저 사람들은 뭐고. 왜 조폭같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거냐고!

박 교수 설명할 시간이 없어. 도망가는데 집중하도록 해.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 정신없이 달린다. 골목길을 좌측으로 돌아 시장이 나온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가까워져

있다. 사이를 달리다가 과일과 채소 몇 개를 밟는다. 화를 내며 일어나는 상인들을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밀치며 쫓아온다. 박 교수 달리다가 가운데에 놓인 파라솔을 넘어뜨린다. 검은 정장 사내들과의 거리가 조금 벌어진다. 시장을 빠져나와 꽃다리 위를 달린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제법 가까워져 간다. 마침 신호등이 파란 불이다. 깜박이는 신호등을 건너가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왔을 때 신호등이 바뀐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건너오지 못한다. 모퉁이를 돌아 한 골목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멈춰서 가쁜 숨을 몰아쉰다.

수혁 대체 무슨 일이야?
박 교수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
한우리 저 사람들. 위험한 존재예요.
박 교수 아무튼. 숨부터 돌리자고.
한우리 아직 포기하지 않고 우릴 찾을 거예요.
수혁 아. 이게 무슨 난리냐고. 난 또 무슨 죄고.
박 교수 미안하다.
한우리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어요.

S# 62.

중앙도서관 입구.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세 사람. 도서관 입구에서 멈춰 선다.

박 교수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우리 어디서 말이죠?
수혁 지금 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박 교수 그래도 이게 더 안전할 거야.
한우리 약속 장소는요?
박 교수 (종이에 무언가를 쓰며) 여기에 적힌 곳에서 모이자.

수혁과 한우리 고개를 끄덕였다.

S# 63.

청주 중앙공원.
박 교수. 중앙공원 안으로 들어온다. 계속 팔짱을 끼고 있다. 공원 안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정리를 시작한다. 직지를 떠올리고 금속활자를 떠올린다. 그리고 철당간도 떠올린다. 그리고 고인쇄박물관에서 본 주조과정을 떠올린다. 처음 목판에 새기고 그 위에 밀랍을 부어 굳힌다. 목판을 떼어내고 찰흙으로 밀랍을 감싼다. 밀랍을 녹여 빼내고 쇳물을 붓는다. 쇳물이 식으면 찰흙을 떼어내고 글자들을 다듬는다. 생각들이 흐르고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다.

박 교수(생각) 분명히 누군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알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행방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우리. 이미 나에게 들통이 났고 모두 털어놓았기에 그녀는 아니다. 수혁. 아마도 아무 것도 모르고 말려든 것일 거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금까지 타고 다닌 차는 홍건적들의 차다. 무슨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 윤곽조차 들어나지 않은 존재들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 벤치 의자에 앉는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친다.

박 교수(생각) 약속시간까지는 앞으로 세 시간. 확인할 것이 있으므로 집에 다녀와야겠다.

S# 64.

중앙공원 앞 길.

박 교수 택시를 잡아탄다. 박 교수를 태운 택시가 출발한다.

S# 65.

박 교수 집 앞.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급히 걷는다. 우편함을 뒤희는데 편지가 한 통 와 있다. 편지를 편다.

박 교수 (생각) 이미 자네가 많은 것을 잃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 내가 죽으면 자네에게로 보내지도록 한 이 편지에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 놓네. 이거 무슨 말이지? 무엇을 기록해 놓은 거야. (다시 편지를 보며) 홍건적의 수장은 세 명.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게. 그리고 내가 준 금속활자를 통해 홍덕사와 용두사지 철당간을 이었을 거라 생각하네. 내가 숨겨둔 두 개의 활자 역시 자네라면 찾았을 거라 생각하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면 정말 단순한 진실을 놓칠 수 있네. 힌트를 하나 남기겠네. 경한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나.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딸을 부탁하네. (편지에서 눈을 떼며) 스승님. 왜 저인가요? 알려 주십시오.

박 교수 집 안으로 들어간다.

S# 66.

박 교수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 교수. 서재는 책들이 모두 쏟아져 있다. 그 사이를 뚫린다. 떨어진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집어 든다. 책 제목은 ‘백운화상어록’이다. 책을 넘기기 시작한다. 책 사이에서 종이가 한 장 떨어진다.

박 교수 그것을 집는다. 주소가 적혀 있다.

박 교수 책과 종이를 챙겨서 방에서 나간다.

S# 67.

운보의 집 매표소.

은색 차량이 들어온다. 주차장에 선 차에서 박 교수. 내린다.

매표소 여자에게 돈을 낸다. 입장권을 받는다. 그리고 운보의 집으로 입장한다.

운보의 집 미술관 앞.

박 교수. 관리인에게 다가간다.

박 교수 혹시 한씨 집안사람이신지요.

관리인 누구십니까.

박 교수 (명함을 내밀며) 며칠 전에 돌아가신 한 선생님 제자입니다.

관리인 (명함을 보더니) 편지는 잘 받았습니까?

박 교수 편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리인 우리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 교수 우선은 한우리 씨를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인 그 분의 따님이신가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관리인 당신은 어디까지 도달한 건가요.

박 교수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선 것이 아닌가 싶군요.

관리인 오랜 시간동안 우리는 흥건적 세력과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적이 없었지요.

박 교수 그들이 찾는 병기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겠지요?

관리인 물론입니다.

박 교수 이제 한씨 가문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관리인 연락을 취하도록 하지요.

박 교수 이 기나긴 싸움은 용화사에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인 그렇습니까?

박 교수 저는 이제 열쇠를 맞추러 갈 것입니다.

관리인 당신은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박 교수 앞으로 한 시간 후에 용화사에 모두 모일 것입니다.

관리인 정말 무서운 싸움으로 변질 수 있겠군요.

박 교수 운보의 집을 나온다. 바로 차에 오른다. 차는 운보의 집을 벗어난다.

S# 68.

어느 창고.

한우리. 묶인 채 쓰러져 있다.

한우리 (생각)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약속된 장소에 가야 하는데. 흥건적들의 짓이라면 어떻게 내 위치를 알았지?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사내 둘이 들어온다. 한우리를 끌고 나간다.

S# 69.

용화사 마당.

박 교수 혼자 걸어 들어온다. 주위를 살핀다. 일곱 개의 불상 앞에 선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다. 그 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박 교수 뒤를 돌아본다.

수혁 일찍 왔잖아.
박 교수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네.
수혁 내가 잠수의 천재잖나.
박 교수 이제 한 사람만 더 오면 끝이네.
수혁 그런데 왜 여기로 모이라고 한 거야?
박 교수 여기가 끝이기 때문이야.
수혁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박 교수 어. 그들이 찾는 것이 여기에 있어.
수혁 그렇군. 얼른 찾아봐.
박 교수 아직은 안 돼.
수혁 왜?
박 교수 아직 시기가 아니야.
수혁 누구 기다려?
박 교수 아직 한우리 씨가 안 왔잖아.
수혁 그 여자 너한테 엄청 중요한가 보네.

그 때 밖에서 많은 수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우리도 섞여 있다. 손을 묶인 채 끌려온다.

박 교수 역시.
수혁 저 사람들 어떻게 여기를.
박 교수 누군가의 제보 아니면 이미 추적 장치를 달아 두었겠지.
수혁 그럴 수가.

맨 뒤에 들어오는 홍건적 수장. 곧장 박 교수에게로 다가온다.

홍건적 수장 이미 와 있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어서 내게 꺼내 주시겠습니까.
박 교수 그녀를 먼저 풀어주시오.
홍건적 수장 아니,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는데.
박 교수 어차피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홍건적 수장 허어. 이미 이쪽이 할 일을 모두 꿰고 있었다는 말투로군.
박 교수 어차피 내가 그 물건을 꺼내주어도 당신들은 쓸 수 없을 테지만 말이오.
홍건적 수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 교수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말이오.
홍건적 수장 그거야 일단 우리가 손에 쥐어보면 알 일이고.
박 교수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물건의 유래를 말이오. 그동안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종합한 답은 하나였소.

홍건적 수장 옛날이야기로군.

박 교수 가장 오래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는지요.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을 종합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지요. 성경에 의하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이요.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신이 말을 섞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역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서로를 시기하고 상대방의 것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챙긴 것은 홍수와 관련된 지식이었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온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다고 하지요. 홍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홍수에서 안전했던 나라가 있었지요. 바로 이 나라. 당시 고조선 시기에 치수법이라는 것으로 홍수를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이 나라가 멸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천부인의 존재 때문이었지요. 당신들이 찾는 고대의 물건은 바로 천부인입니다. 물론 정확한 형태는 나조차 보지 못했으니 알 수가 없지요. 당신들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비가 당신들을 향해서만 내린다고. 그것이 천부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홍건적 수장 하지만 천부인은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소.

박 교수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민족이 챙긴 것은 바벨탑에서도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건적 수장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 천부인을 가져갈 것이요.

박 교수 봉인된 천부인을 꺼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홍건적 수장 그래도 포기할 수 없소.

박 교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한다.

홍건적 수장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는 그 물건을 통해 홍건적의 뜻을 두루 알리는 것이 목적이요.

박 교수 하는 수 없군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치우의 후손이요?

홍건적 수장 그럴 리 있겠소.

박 교수 천부인은 치우의 피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건적 수장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박 교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물론 두려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홍건적 수장 그렇다면 당신의 목숨도 여기까지군요.

홍건적 수장 검은 정장 사내들에게 손짓을 한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 품에서 칼을 꺼낸다. 수혁이 갑자기 박 교수 앞에 선다.

수혁 이제야 도착했군.

검은 정장의 사내들 뒤에서 붉은 셔츠를 입은 사내들이 들어온다. 모두 손에 칼을 들고 있다.

S# 70.

용화사 마당.

스님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 박 교수. 그들에게 달려간다.

박 교수 스님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수혁이 홍건적 수장을 향해 걸어간다.

수혁 이 날을 기다려 왔지.

홍건적 수장 너……년.

수혁 붉은 장군 수혁을 잊지는 않았겠지?

홍건적 수장 그, 그렇군. 네놈이 푸른 장군을 죽인 녀석이로군.

수혁 자, 이제 검은 장군께서도 가실 때가 된 것 같군요.

홍건적 수장 어리석은. 난 그리 쉽게 당하지 않는다.

수혁 식은땀을 흘리고 있군요.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된 것 아닌가?

홍건적 수장 어째서 저 자를 돕는 것이지?

수혁 도와? 후훗 그건 착각이야. 난 단지 홍건적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회를 보고 있었지.
세 명의 수장 아래 제멋대로의 행동 말이야. 그것이 홍건적이 더 커지지 못하는 장애물이었거든.
당신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당신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질 거야.

홍건적 수장 저, 저 놈을 쳐라!

검은 정장의 사내들 수혁을 향해 달려든다.

수혁 나를 치면 내 부하들은 어떻게 할 건데?

붉은 셔츠의 사내들이 홍건적 수장을 향해서 달려든다.

홍건적 수장 저 놈의 부하들부터 막아.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방향을 바꿔 붉은 셔츠의 사내들에게 달려간다. 순식간에 피가 튀는 싸움터로 변한다.

수혁. 홍건적 수장을 향해 걸어간다. 홍건적 수장. 품에서 총을 꺼낸다. 수혁이 달려든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손을 잡아 위로 올린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품에서 칼을 꺼낸다. 순식간에 홍건적 수장의 심장에 칼이 꽂힌다. 홍건적 수장. 쓰러진다. 한우리는 혼란한 틈을 타 박 교수에게 달려간다.

박 교수 다친 데는 없어요?

한우리 고개를 끄덕인다.

박 교수 (묵인 손을 풀어주며) 이틈에 저기로.

한우리 (박 교수의 손을 잡는다.) 무서웠어요.

박 교수와 한우리. 일곱 개의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S# 71.

용화사 마당.

검은 정장의 사내들과 붉은 셔츠의 사내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수혁은 쓰러진 홍건적 수장을 보며 한 쪽 무릎을 굽히고 있다.

수혁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불만은 없겠지.

홍건적 수장 (칼에 찔린 가슴을 잡은 채) 하지만 새로운 수장은 또 나타날 거다.

수혁 내가 통합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천부인도 내가 차지할 생각이지.

홍건적 수장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군. 아무래도 내 삶은 여기까진가 보군. 꽤나 길고 아슬아슬한 생이었다.

수혁 이제 조용히 눈이나 감아.

주변을 다시 보여준다. 붉은 셔츠의 사내는 이제 몇 남지 않았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의 수는 아직도 많다.

수혁 (주위를 둘러보며) 췌.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이놈의 영감탱이 오래 산만큼 잘도 이만큼이나 되는 부하를 가졌네.

수혁. 홍건적 수장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는다. 그리고 홍건적 수장의 심장에 박았던 칼을 뽑는다. 홍건적 수장의 심장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수혁 자, 그럼. 오랫동안 친구로 함께 해왔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군. 게다가 그 배신자 여자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이야.

수혁은 박 교수와 한우리가 간 방향으로 걸어간다.

S# 72.

용화사 불상 앞.

박 교수 불상에 당도하자마자 불상 위로 올라간다. 한우리 밖에서 서성인다.

S# 73.

용화사 불상 앞.

박 교수 계속 불상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찾는다. 수혁이 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난다. 한우리. 수혁과 눈이 마주친다. 수혁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한우리가 박 교수를 돌아보고 다시 수혁을 보았을 때 수혁은 이미 한우리 앞에 서 있다. 수혁은 한우리에게 칼을 들이민다. 그리고 박 교수를 향해 총을 든다.

한우리 (작은 목소리로) 교수님.

수혁 이 봐. 친구.

박 교수 뒤를 돌아본다.

박 교수 (놀라며) 수혁이 왜 그러냐.

수혁 (웃으며) 어쨌나. 내 연기가.

박 교수 연기라니.
수혁 그동안 계속 네 옆에서 친구인 것처럼 있었던 것 말이지.
박 교수 무슨 소린가.
수혁 내가 홍건적 당주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박 교수 너도 당주였던 말이야?
수혁 이 멋진 계획에 동참해 줘서 고마워.
박 교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혁 뭐. 삶의 가면이라고나 할까.
박 교수 그녀는 봐주도록 하게.
수혁 오우. 그건 안 될 말.
박 교수 대체 왜 이러는거야.
수혁 자네가 내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한 열쇠랄까 말이지. 이 여자는 말이야.
박 교수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그림. 저기 있는 홍건적 수장은 어떻게 했나.
수혁 그건 말이지. 깔끔하게 보내 줬어. 여기 이 여자를 겨누고 있는 칼로 말이야.
박 교수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수혁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빠르군.
박 교수 역시 천부인을 노리는 것인가.
수혁 덩동댕.
박 교수 너희 수장은 셋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혁 맞아. 나와 아까 보낸 그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오래 전에 보냈지. 떠올려 봐. 너와 내가 친구가 된 계기를 말이지.
박 교수 설마.
수혁 이제 조금 떠오르나? 십오 년 전의 일을 말이야.
박 교수 잊을 수 없지.

박 교수 눈을 감는다.

S# 74.

십오 년 전.

학교 운동장.

젊은 박 교수가 서 있다. 박 교수의 뒤로 키가 큰 근육질의 사내가 서 있다. 사내의 손에 이끌려 운동장에서 건물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마침 건물에서 나오는 한 교수와 마주친다.

젊은 박 교수 스승님. (울먹인다.)

근육질 사내 당신을 한참 찾았지. 그것을 내놓지.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의 목숨은 없으니까 말이야.

한 교수 무슨 말인가. 그 학생을 봐 주게.

근육질 사내 내 봐. 너희가 숨기려 했던 것을. 너희 청주 한씨라면 예부터 정치에 깊게 뿌리박힌 집안이니 말이야.

한 교수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젊은 박 교수 교수님 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자에게만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근육질의 사내가 쓰러진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은 수혁이다. 근육질의 사내는 쓰러진 채 일어날 줄을 모른다.

젊은 수혁 기절한 것뿐이야. 일단 달아나지.

한 교수. 수혁과 박 교수를 자신의 차에 태운다. 학교를 벗어난다.

S# 75.

현재 용화사 불상 앞.

계속해서 대치된 상황이 계속이다.

박 교수 그래. 그 때는 너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
수혁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것으로 인해서 멍청한 한 교수가 너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하도록 말이지.
박 교수 그렇다는 것은 설마.
수혁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지.
박 교수 그 사내는 총에 맞아 죽었잖아.
수혁 아니. 이미 죽어 있었어.
박 교수 어떻게.
수혁 그거야 내 손에 죽은 거니까.
박 교수 하지만 사망 추정시각이 다르잖아.
수혁 간단한 속임수지.
박 교수 무슨 말이지?
수혁 뒤에서 그 자를 덮쳤을 때 이미 한 번에 목숨을 빼앗으며 동시에 피가 따뜻하게 유지되게 하는 방법.
박 교수 그 방법이란?
수혁 주사기를 이용한 방법이지. 반은 공기 반은 아편.
박 교수 그런 것인가.
수혁 그리고 그 총상은 부하를 시켜서 예정된 시간에 박아 넣으라고 한 것이지.
박 교수 그런 치밀한 방법을.
수혁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뿐이지.
박 교수 좋아. 하나만 더 묻지. 스승님을 살해한 것도 네가 한 것이야?
수혁 아아. 그건 사고였어. 원래는 입만 막으려고 했거든.
박 교수 대체 왜지?
수혁 그래 좋아. 그 이야기도 해주지.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두자고. 며칠 전에 나를 부르더군. 이외로 나를 신뢰하고 있었지.

S# 76.

며칠 전.

한 교수의 집.

소파에 한 교수와 수혁 앉아 있다.

한 교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수혁 무슨 일이시죠?

한 교수 내가 박 교수에게 금속활자를 맡겼다네.

수혁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한 교수 그것은 자세히는 말해줄 수 없네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

수혁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건요?

한 교수 홍건적들에게 쫓길 걸세. 아직 내부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체제는 수장이 세 명이 있다고 하지.

수혁 홍건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한 교수 그렇다네. 대대로 그들로부터 지켜오는 보물이 있지.

수혁 자세히 알 수는 없을까요?

한 교수 이 이상은 알면 안 된다네. 물론 박 교수에게도 힘든 짐이 되겠지.

수혁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한 교수 무슨 말인가.

수혁 그렇다면 더 조심하셨어야지요.

한 교수 자네 대체.

수혁 그동안의 연기가 헛된 고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혁. 입가에 미소가 담긴다. 수혁 서서히 한 교수 앞으로 다가간다. 한 교수 한 걸음씩 물러난다.

S# 77.

현재 용화사 불상 앞.

한우리 갑자기 돌아서서 수혁의 목살을 잡는다.

한우리 왜 아빠를. 아빠를 죽인 거야!

수혁 아아. 그거 말이지. 나중에 내가 위험하다 싶더라고. 자칫하면 내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으니까.

한우리 용서 못 해. 용서 못 해. (운다.)

수혁 아아. 여자들 우는 것은 딱 질색인데 말이야.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릴까.

박 교수 얼추 짐작은 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군.

수혁 그런가? 역시 한 교수가 뒤를 맡길 만하군.

박 교수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지금까지 뜬구름 잡는 기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수혁 뭐. 상관은 없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박 교수 그럼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게.
수혁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박 교수 이 절의 전설을 알고 있나?
수혁 글썄. 중요한가?
박 교수 중요한 문제지. 아까 흥건적 수장과의 대화를 들었다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거야.
수혁 혹시 그 물건에 관한 건가?
박 교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예전에 이 절은 엄청 컸다고 하더군. 신라 시절에 말이야. 하지만 잦은 침략으로 인해 부서져 버렸다고 하더군. 조선 시대에는 스님과 군수가 같은 꿈을 꾸고서는 찾게 한 물건이 있다고 하지. 그 당시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는 것이지. 그 비로 인해 홍수의 피해를 제법 많이 봤다는 것이지. 꿈에서는 불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불상의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 주었지. 물 한가운데에서 낚시꾼들이 밟고 서서 낚시를 하던 돌이 알고 보니 불상이었다는 이야기야. 여기 이 불상들이 물에서 건져낸 일곱 개의 불상이지. 이 절이 다시 세워진 것은 이 불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수혁 그런 이야기군.
박 교수 그런 이야기야. 단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불상들을 건져내자 비가 그쳤다는 이야기지.
수혁 어쩌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군. 그럼 이제 내게 금속활자 조각을 넘기시지.
박 교수 쓸 줄도 모르잖아.
수혁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 난 다 알고 있어.
박 교수 도청한 건가?
수혁 지금도 듣고 있지. 네 손목시계를 통해서 말이야. 기억나지? 내가 준 선물이었지. 사실은 너를 통해서 한 교수의 정보를 캐낼 속셈이었지만. 설마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박 교수 모르는 사실이 있기도 하군.
수혁 나 역시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지.
박 교수 그런가.
수혁 그런 거지. 자. 장난은 이쯤 해 두도록 하고.

수혁은 갑자기 한우리를 놓아준다. 한우리 박 교수의 옆으로 온다.

수혁 아아. 불청객이 온 것 같아서 말이지. 열심히 조사하고 있으라고. 잠시 나머지를 처리하고 올 테니까 말이야.

수혁은 다시 마당 쪽으로 향한다.

S# 78.

용화사 불상 앞.

박 교수 하던 일을 계속 한다. 한우리. 그런 박 교수를 바라본다.

한우리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박 교수 그럴 필요 없어요.

한우리 우리를 죽일 거라고요.

박 교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우리 우리 아빠도, 자기편도 죽인 사람이에요.
박 교수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우리 그게 뭔데요?
박 교수 사실은 여기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우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교수 보세요. (석상 뒤의 흠들을 보여준다.)
한우리 이걸.
박 교수 지금부터 열쇠를 쫓아보죠. 잘못 쫓는다면 다 망가질 거예요.
한우리 그렇다는 것은.
박 교수 이 작업을 하는 동안은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한우리 하지만 다 맞추어도 못 맞추어도 어차피 죽일 거 아니에요.
박 교수 다 맞추었습니다. (구멍에 활자들이 쫓혀 있다.)
한우리 이게 끝인가요?
박 교수 잠시만 기다려 봐요. (불상의 머리를 누른다.)

일곱 개의 불상 중 가운데 있는 불상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불상 여섯 개가 움직이며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돌이 밀려 나왔는데 흠이 있었다. 그 흠은 칼 모양과 거울 모양, 방울 모양이었다. 그러나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박 교수는 흠이 파인 돌을 다시 밀어 넣는다. 그러자 불탑이 움직이더니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온다.

박 교수 혹시 풍백과 우사와 운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우리 단군신화 속 인물이죠. 잘 알고 있지요.
박 교수 단군 신화 속에 나온 것은 맞지만 사람인지 물건인지는 밝혀진 것이 없어요.
한우리 그렇다면.
박 교수 천부인이 다음의 물건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대로 청동검과 방울, 그리고 거울 말이죠.
한우리 그 밖에도 더 있는 거죠?
박 교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소유했던 선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사와 운사와 풍백의 핏줄 말이에요.
한우리 현재는 그런 인물들이 없는 건가요?
박 교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사람의 몸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죠.
한우리 그럼 고려 시대에 사용한 사람 역시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군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에게는 무기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병기입니다. 하지만 병기의 힘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만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 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경한 스님 역시 다른 이들이 욕망에 가득 차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사건으로 덮여둘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공민왕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런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한우리 조작설이라. 일리는 있지만 증거는 있잖아요.

박 교수 천부인을 찾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선수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아니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적인 장치라고 할까.

한우리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박 교수 어쩌면 모르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몰라요.

한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풀어냈군요.

박 교수 그 쪽 도움이 컸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우리 그런데 열쇠는 어떻게 찾은 건가요?

박 교수 여기 하천의 이름이 뭐죠?

한우리 무심천이요.

박 교수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어요. 경한 스님 역시 무심을 주장하시다 입적하신 분이지요. 결국 ‘무심’이라는 것이 답이었지요.

S# 79.

용화사 마당.

검은 정장 사내들과 수혁이 대치해 있다. 수혁의 부하들은 모두 쓰러진 상태고 수혁은 여섯 명 남은 검은 정장 사내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수혁 자. 그럼 누구부터 죽여줄까. 선택권을 주겠어. 간단한 이지선다 질문이다. 나를 따를래? 아니면 죽을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대답이 없다. 칼을 들고 서 있다.

수혁 나는 총을 들고 있잖아. 총이 너희들이 오는 것보다는 빠르겠지. 총알 수도 넉넉하게 열 다섯 발이네.

수혁은 비아냥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 그렇다고 바로 총을 쏘지는 않는다.

수혁 나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거든. 지금까지 사람도 많이 죽여 봤고,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해 볼 생각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야망이 조그마해서 어디다 써먹나? 이제부터 새로운 흥건적을 만들 계획인데 말이지.

검은 정장1 정말 당신을 위해 일 할 수 있단 말이지.

수혁 제법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군.

검은 정장2 흥. 웃기지 마라. 어차피 살려줄 마음도 없을 거다.

수혁 덩동탱. (검은 정장2를 쏜다.)

검은 정장1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다.

수혁 그래서 안 쏘잖아.

검은 정장3 나는……

수혁 너는 필요 없어. (검은 정장3을 쏜다.)

검은 정장1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제히 수혁에게 달려든다. 그 중 하나는 검은 정장1의 칼에 쓰러진다. 그리고 하나는 수혁이 쏜 총에 쓰러진다. 남은 하나가 수혁에게 칼을 휘두르지만 수혁은 칼을 피하고 자신의 칼을

검은 정장의 심장에 꽂는다. 검은 정장1을 제외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진다.

수혁 오호. 제법 기특한 일을 하는군. 너는 살려주지.

수혁은 총을 주머니에 넣는다. 검은 정장1. 칼을 품에 넣는다. 수혁은 뒤돌아서 다시 불상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긴다. 검은 정장1 수혁의 뒤를 따른다.

S# 80.

용화사 불상 앞.

박 교수 시선이 용화사 마당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한우리 저건 총소리잖아요.

박 교수 아무래도 다 쓸어버린 모양이군요.

한우리 이참에 도망가죠.

박 교수 그게 불가능할 것 같소이다.

마당 쪽으로 수혁이 나타난다. 그 뒤로 따르는 검은 정장1도 보인다.

수혁 어떻게 도망도 가지 않네?

박 교수 어차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지 않나?

수혁 그래. 거의 너에 관한 것이라면.

박 교수 나는 아직 자네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네만.

수혁 그런가.

박 교수 아직 너한테도 기회는 있어.

수혁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나야.

박 교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수혁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박 교수 이제 홍건적들은 네 손에 의해서 모두 사라졌어.

수혁 모두는 아니지. 내 뒤에 남았잖아.

박 교수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만 이 나라만큼은 더 이상 없는 거잖아?

수혁 뭐 지금 남은 홍건적들이라고는 프랑스에서 직지를 노리는 무리와 중국에서 치우의 후손들을 노리는 무리뿐이지.

박 교수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친구라서 아닌가?

수혁 아니. 곧 죽을 목숨이기 때문이지.

박 교수 왜 스스로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지?

수혁 그렇지 않아.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박 교수 너는 지금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어.

수혁 그런 식으로 현혹하려 하지 마. 나는 바뀌지 않아.

박 교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니까.

수혁 하하하하. 이제 다시 홍건적 사람들을 모을 거야. 아직 자신의 핏줄이 홍건적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지. 이제 대부분은 중국인이겠지만.
박 교수 더는 소용이 없는 건가?
수혁 그것보다 빨리 나에게 물건을 꺼내주는 것이 어때?
박 교수 물건은……없었다.
수혁 그럴 리가.
박 교수 아직 친구라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거야.
수혁 어디다 숨겼지?
박 교수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는데 그런 일을 내가 할 시간이 없었잖아.
수혁 설마. 그들이 움직인 건가?
박 교수 아마도.
수혁 뭐. 괜찮아. 또 너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살려두도록 하지.
박 교수 그런데 네 뒤에 있는 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수혁 (뒤를 돌아보며 무표정하게 총을 꺼내 당긴다.) 그럼 필요 없어.

검은 정장¹ 쓰러진다. 수혁은 다시 주머니에 총을 넣는다.

박 교수 냉정하네.
수혁 그래.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박 교수 그럼 여기 여자는 보내주고 나와 함께 가자.
수혁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박 교수 나만 있으면 되잖아.
수혁 혹시나 모르는 보험이랄까. 저 여자도 뭔가 관련이 있다는 기분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한우리 당신은 내가……용서할 수 없어.
수혁 제법 무서운데.
박 교수 나는 자네에게 거짓말조차 한 적이 없다고.
수혁 후후후. 나를 우습게보지 말라고.
박 교수 하야. 할 수 없군. 받아. (뒷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낸다.) 깨뜨리지 말라고.
수혁 (거울을 건네받고) 이게 뭐지?
박 교수 그토록 찾아 헤맨 물건이지.
수혁 이게 천부인이란 말이지. 그럼 어디 사용을 해볼까?
박 교수 소용없다니까.

수혁이 거울을 들어도 보고 흔들어 본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혁 쟤장. 이래선 아무 소용이 없잖아.
박 교수 다시 줘 봐.

수혁에게 거울을 건네받은 박 교수. 눈을 감고 거울을 쥔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혁 이걸 말도 안 돼.

박 교수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분명히 치우의 피가 섞인 사람만이 다룰 수 있다고 했지.
수혁 그렇다면 너는?
박 교수 그래. 치우의 피가 이어져 있지.
수혁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웃는다.) 하하하. 지금까지 난 뭘 찾으러 다닌 거야.
박 교수 이제 다 끝났어.

박 교수 한우리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수혁을 지나쳐 간다. 박 교수가 자신의 겹옷을 벗어서 한우리 어깨에 걸쳐준다. 비는 점점 많이 온다. 그런 둘을 향해 수혁이 일어나며 총을 겨눈다. 총성이 울리고 오히려 수혁의 총이 수혁의 손에서 떨어진다. 당황하는 수혁 앞으로 관리인이 나타난다. 총을 겨눈다. 박 교수가 다시 뒤돌아선다.

박 교수 이거. 가져가도 좋아. (거울을 건넨다.)
수혁 (거울을 받아든다.) 제길! (바닥에 내던진다.)

수혁이 던진 거울이 바닥에 부딪치며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박 교수는 한우리와 함께 절을 나간다.

S# 81.

차 안.

박 교수가 한우리에게 수건을 건넨다.

한우리 아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박 교수 뭐. 마술이라고 해 둥시다.
한우리 다 끝난 건가요?
박 교수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아까 그 거울은 가짜거든요.
한우리 그러면 어떻게.
박 교수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해야 할 일이니 함께 가시죠. (차에 시동을 건다.)
한우리 그 친구 분은 어떻게 되죠?
박 교수 글썄요. 목숨은 부지하겠죠.
한우리 이로써 홍건적의 존재는 다 끝난 것 같군요.
박 교수 아직 남아 있지만 이로써 활동 범위는 줄어들겠죠.
한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 교수 마지막으로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이지요.
한우리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던 거예요?
박 교수 이제 모두 파헤쳤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한우리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박 교수 당신도 무사해서 다행이군요.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미소를 짓는다.)

S# 82.

운보의 집.

주차장에서 내린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안으로 들어간다. 계속해서 길을 올라간다. 조각공원으로 올라가는 우측으로 산길이 있다. 그쪽으로 올라간다. 큰 무덤이 세 개 있다.

박 교수 다 왔습니다.

한우리 여기는?

박 교수 김기창 화백의 무덤이지요.

한우리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박 교수 (제단 밑에 손을 넣더니 청동검을 꺼낸다.) 이것이 있지요.

한우리 그것은?

박 교수 천부인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힘을 발휘하지만 말이죠.

한우리 나머지 둘도 여기에 있나요?

박 교수 물론입니다.

박 교수는 다른 두 무덤의 제단 밑에서 거울과 방울을 꺼낸다.

박 교수 이제 가지요.

한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 교수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 두려 가는 것이지요.

한우리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건가요?

박 교수 이 힘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힘입니다. 자칫 잘못 쓰면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한우리 당신의 판단을 믿고 있어요.

박 교수 이만 가지요.

두 사람. 무덤을 내려온다.

S# 83.

차 안.

두 사람 이야기를 한다.

한우리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 교수 처음에 믿지 않았던 홍건적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 웬만한 것들은 다 믿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홍건적들이 옛날부터 노리던 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 천부인을 숨기기로 한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켜 천부인에 대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말이죠. 그 덕분에 직지가 발간되었고 그 속에 백운 경한 스님은 작은 힌트를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청주가 홍수와 관련된 설화가 많은 것도 모두 천부인의 말썽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너무 강력한 힘이 가끔 뿔어져 나와서 말이죠. 용화사의 불상은 그 힘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우리 핏줄에 대한 이야기는 뭐죠?

박 교수 옛날 고조선 시대에는 풍백, 운사, 우사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다음의 물건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한우리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박 교수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위해 일한 집안으로 알고 있어요. 고려 시대부터 주로 천부인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요.
한우리 아빠도 그 중 한 사람이었군요.
박 교수 아마도 한씨 집안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겠지요.
한우리 마지막으로 경한 스님의 암호는 어떻게 풀 거예요?
박 교수 그것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지요.

S# 84.

고려시대 홍덕사.
경한과 스님 넷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스님1 이 책을 금속활자로 엮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군요.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불조직지심체요절에는 몇 개의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 글자들 알이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음의 물건들을 봉인하도록 해 주세요.
젊은 스님2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한 그리고 천부인은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할 겁니다. 몇 번인가 그 힘이 억제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이 되었지요.
젊은 스님3 잘 알겠습니다. 봉인식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마지막으로 이 작업에 대해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스님4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그럼 소승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한이 홍덕사를 빠져나간다.

S# 85.

현재 차 안.
박 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박 교수 그렇게 준비가 끝나고 공민왕은 공민왕만의 방법으로 경한 스님은 경한 스님만의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공민왕이 죽은 시기와 경한 스님이 세상을 떠난 시기가 같으니까 말이죠.
한우리 그리고 그 이후 직지가 나온 것도 말인가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한우리 그럼 구텐베르크 활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박 교수 가정일 뿐이지만 그것도 세상의 눈을 돌리기 위해 몰래 전파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우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박 교수 물론 가정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한우리 그럼 이제 이 활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박 교수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한우리 그럼 계속 이 물건들을 숨기겠다는 말이군요.
박 교수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리 그럼 고인쇄박물관에도 철당간에도 가 봐야 하겠군요.
박 교수 물론 그래야지요.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한우리 얼른 가도록 해요.

S# 86.

용화사 마당.

한우리와 박 교수 들어온다. 경찰차가 잔뜩 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앞을 막는다.

검사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박 교수 검사님입니까?
검사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제지하는 검사에게 관리인이 다가온다.

관리인 보내 주십시오.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사 아. 그분들이군요. 저와 함께 가지죠. 여러분들만 간다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박 교수 얼른 끝내야겠군요. 그런데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검사 일단은 정신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
박 교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검사 그냥 조직폭력배끼리의 세력 다툼이라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교수 그래도 계획대로 이 나라의 흥건적을 모두 소탕하였군요.
검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지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컸으니까요.
박 교수 그럼 방해되지 않게 얼른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가 불상 앞으로 걸어간다. 금속활자를 쫓은 뒤 불상이 움직이며 밑에서 흠이 있는 돌이 밀려나왔다. 각 모양대로 청동검과 청동거울, 방울을 올렸다. 그리고 돌을 밀어 넣었다. 처음의 형태로 불상이 다시 움직였다. 박 교수는 한우리와 검사가 서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비가 멈추었다. 구름을 뚫고 햇빛이 박 교수를 비추었다.

검사 수고하셨습니다.
박 교수 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검사 무엇입니까.
박 교수 직지 상권에 관한 것인데 말이죠.
검사 오래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매장 장소는 원흥이 방죽 한 가운데입니다. 금속판을 매장한 것이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부식되었을 겁니다.
박 교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리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박 교수 거의 말이죠.

용화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서 있었다. 박 교수는 주머니를 하나 넘겼다. 관리인은 그것을 받더니 용화사 밖으로 나갔다. 박 교수와 한우리도 밖으로 나갔다.

S# 87.

차 안.
박 교수가 운전을 하고 있다.

한우리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박 교수 뭐가 말이죠?
한우리 이 일들 말이에요.
박 교수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한우리 시작이라뇨?
박 교수 앞으로도 할 일은 많다는 뜻이죠.
한우리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천부인을 숨겨놓은 장소가 운보의 집이었던 건가요?
박 교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역시 천부인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우리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박 교수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박 교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한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고서는 우스운 질문이네요.
박 교수 그럼 저녁이나 함께 먹으러 가요.
한우리 좋아요.

S# 88.

고려시대.
고려 왕궁.
공민왕. 홍윤의 칼에 찔리며 쓰러진다. 그러나 얼굴에는 미소가 있다. 오히려 홍윤을 끌어안는다.

공민왕 어려운 결정을……내려주어서 고맙다.

홍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S# 89.

고려 왕궁.

최영이 포박되어 있다. 그 앞에 서있는 이성계.

최영 자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네. 이번에 내 목을 쳐주었으면 좋겠네. 말도 안 되는 이유라도 좋다네.
그저 고려의 무장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싶네.

최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성계.

S# 90.

고려 최수 처형장.

최영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고 곧 칼이 최영의 목으로 날아든다. 죽는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는 최영. 다시 화면이 어두워진다.

S# 91.

여주 혜목산 취암사.

경한이 가운데 앉아 있다. 양쪽으로 스님 네 사람이 앉아있다.

경한 이르는 곳이 모두 돌아갈 길이요. 만나는 곳이 모두 고향……

한참의 정적이 흐른다. 가까이 있는 스님이 다가간다.

스님 입적하시었소.

모든 스님들이 고개를 숙인다. 절의 풍경이 보인다. 점점 절이 멀어지며 화면이 어두워진다.

엔딩 크레딧.

Fin.